

2016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장애·비장애 통합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집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2016. 10.



목 차

I . 이론적 배경

1.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의 이해	8
1) 통합교육의 정의와 배경	8
2) 통합교육의 목적	9
3) 통합교육의 단계	10
4) 통합교육의 혜택	10
2. 장애의 이해와 장애인의 성	11
1) 장애의 이해와 현황	11
2) 장애인의 성: 인권으로서의 접근	14
3)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과 성교육	16
4)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실태	19
3. 성인권에 기반을 둔 성교육의 필요성	23
1)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2009):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23
2) 성적권리 Sexual Rights	23
3) 학교 성교육의 전환: 생식에 관한 정보 전달교육에서 섹슈얼리티 교육으로	25
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을 위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필요성	26
1)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용자원도 통합되어야 한다.	27
2) 중랑 ‘탁틴talk’에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하다.	28
3) 교육에도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29
5.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개념과 목적	30
1)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개념	30
2)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목적	31
3)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31
II .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32
1.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34
1) 초등 저학년	36
2)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	45
3) 고등학생	52
4) 장애 성인 1코스	60
5) 장애 성인 2코스	65
6) 가족 프로그램	71
2.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77

I. 이론적 배경

I. 이론적 배경1)

1.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이해2)

1) 통합교육의 정의와 배경

통합교육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 전형적인 아동과 함께 학교와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3) 제2조 6항에 따르면,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심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한 지역 사회,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교육 및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합교육은 확대되는 추세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장애아교육법(PL94-142)에 따라 모든 장애 아동이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관계없이 욕구에 맞는 적절한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세 가지의 문제가 통합교육의 기저가 되었다. 첫째, 미국에서 시민권을 보장받기 위한 소수민족의 노력이 있었다. 분리된 특수학급에서 인종 차별이 행해졌으며 지적장애 아동으로 잘못 판정되어 배치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둘째, 일반교사들에 의한 개별화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며 지적장애 아동을 포함하는 통합학급에서 교사가 다양한 능력 수준을 가진 아동들에게 개별화된 교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특수교육분야에서 제기됐다. 셋째, 분리된 특수학급에 대한 각성으로, 특수 학급에 있는 지적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에서보다 학업성취나 사회성 발달에서 더 나은 발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들로 인해 분리교육의 효과가 비판 받았다(이양섭, 1995). 이런 문제점들을 기저로 하여 통합교육은 정상화 원리와 같은 철학적 믿음, 탈수용시설화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 최소제한 환경의 의무화와 같은 법률제정 등에 의해서 그 발달속도가 가속화되었다.

가. 정상화 원리

정상화 원리란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 및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믿음으로 1960년대 중반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이를 장애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목적 및 수단이 가능한 한 정상인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 및 수단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탈수용시설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장애인들 특히 중도장애인들의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1) 탁틴내일, 2013,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에서 II. 이론적 배경 참조.

2) 탁틴내일, 2013,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 세상』에서 II. 이론적 배경 참조.

보편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많은 수용시설에서 적절한 교육/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전문가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걸쳐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이들 장애인들을 분리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탈수용시설화라 한다. 이와 같은 탈수용시설화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 최소제한 환경

최소제한 환경이란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로서, 모든 장애아동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비장애 또래, 가정,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환경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아동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이것은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절대적인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을 분리된 특수학교나 수용시설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상화의 원리, 탈수용시설화, 최소제한적 환경 등의 개념을 토대로 발전해 온 통합교육은 최근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하나의 교육체계로 통일함으로써 교육적인 개혁을 시도하려는 일반교육주도, 완전통합의 움직임 등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현실을 고려했을 때, 완전통합이 장애아동을 위한 단 하나의 적절한 선택이라는 주장에 많은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통합교육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의미 있는 목표이고 특수아동은 가능한 한 일반학급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특수아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교육 서비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특수교육의 연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특수교육연구회, 2002).

2) 통합교육의 목적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에게도 편견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교육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장애학생도 자기와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을 수용하고 참여시키는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즉,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징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을 일반학습에 물리적으로 통합(시간적 통합)하는 것 외에도 학문적(교수 활동적 통합), 사회적(사회적 통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의 목적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비장애학생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며, 장애학생에게 있어서는 비장애학생과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장차 사회생활에서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3) 통합교육의 단계

미국에서 통합교육이 시작된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아간다.

가. 물리적 통합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접촉이 가능하고 증가되도록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했다. 물리적 통합의 효과로 많은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으나 특수학급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지내고,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경험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학생 등에게서 다시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 사회적 통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사회적 접촉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재교육과 사회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일반교사에게 통합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과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모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했으나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 교육 과정적 통합

일반교육과정을 개별 학생의 개인적인 요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장애학생에게 일반 학급 수업이 실질적인 교육적 이익이 되도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동일한 교육과정 구조와 장기 목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4) 통합교육의 혜택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분리교육이 장애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윤리적인 측면, 장애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성과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합교육은 또한 비단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에게도 긍정적인 혜택을 미칠 수 있다. 통합교육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혜택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적절하고도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장애학생은 통합 환경에서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많은 자극과 모방,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비장애학생의 부모와 장애학생의 부모 간의 상호작용 및 나이에 적절한 환경 등 분리교육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결함을 보이는 사회성 발달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발달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기타 발달 영역 및 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의 발달적, 행동적, 학업적 성취는 통합 환경에서도 촉진될 수 있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은 주변의 따뜻하고, 수용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갖게 된다. 또래

아이들을 통해 나이에 적절한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통합 경험은 성인이 되어 자립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송경선, 2008).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교과과정의 운영이나 교수의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비장애학생에게 미치는 혜택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비장애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비장애학생들이 통합 환경에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주의 깊은 계획과 배려로 인해 발달적, 행동적, 태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장애학생들이 통합 환경에서 장애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수용하고,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장애학생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학습하게 되는 것은 통합교육을 통해서 비장애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통합을 경험할수록 거부감이 줄고, 자연스럽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살펴 적절한 돌봄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배우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돌봄과 배려를 적절히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는 자신과 다른 생각, 행동, 삶에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이러한 개방성으로 스스로의 생각, 행동, 삶을 성찰하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2. 장애의 이해와 장애인의 성³⁾

1) 장애의 이해와 현황

가. 장애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는데 현재 장애 연구에서는 ‘장애’와 관련해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다른 개인적 비극에 의해 발생한 생리학적이고 해부학적이며 심리학적인 손상의 직접적 결과로 간주한다.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는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지 않고 사회체계의 결함으로 보며 손상과 장애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손상이지만, 건물의 출입구가 높거나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장애인 것이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 최근에는 과거의 의료적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면서 국제장애분류(2001)에

3) 탁틴내일, 2013, 『교구를 활용한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에서 II. 이론적 배경 참조.

서는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환경적 맥락을 더욱 강조한다(교사용 매뉴얼:31).

나. 장애의 유형과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애분류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의 장애 유형은 의료적인 지원이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에서는 교육적인 지원을 위한 분류를 하고 있다.

▶ 시각장애 : 시각장애는 중심시력, 시야, 색 지각 또는 양안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감각에 해부학적·기능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눈 자체의 문제로 인해 물체를 식별해내는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와, 다른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시력에 합병증이 온 경우가 해당된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시력장애 정도와 시야결손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시각장애인은 259,84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장애인 중 9.8%에 해당된다. 시각장애인은 길을 걸을 때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온몸이 긴장 또는 불안을 느끼며 척추가 휘거나 근육강직 등의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시각적 경험과 학습의 부족으로 인해 지적능력의 발달에 제약이 있다거나, 명확한 개념형성이 어렵고 언어발달이 더디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은 시각 대신 더욱 발달된 다른 감각을 통하여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된다.

▶ 청각장애 : 청각장애는 청각기관의 결함이나 청력기능의 손실로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갖거나, 혹은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며,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구분하는데,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에 의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70dB ISO 이상)를 농(deaf)이라고 하며, 잔존하는 청력기능이 있어서 보청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일반적으로 35~6dB ISO)는 난청(hard of hearing)이라고 구분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외관상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화라는 청각장애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점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들만의 공동체성과 문화를 갖는 특성이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입술을 읽는 구화법과 손으로 말하는 수화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최근에는 수화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비장애인 사회 속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화를 통한 교육을 받고 있다.

▶ 지적장애 : 지적장애는 일반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에의 적응행동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지적장애는 IQ를 기준으로 하여 70이하인 경우를 지적 장애로 구분하며, 장애 정도의 구분은 IQ 기준으로 경도(50~70), 중등도(35~49), 최중도(20 이하)로 나눈다. 또 적응행동수준은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 사회성 기술, 직업 기술 등을 살펴 발달지체가 있는지 판단한다(전지혜, 2010). 이는 개인의 연령대와 또래 집단에서 기대되는 적합한 상황적응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 자원 이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기술, 직업, 여가, 건강, 안전 중 적어도 2개 이상 영역에서 현저한 손상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2008). 주로 낮은 IQ 보다는 적응기능의 측면에서 지적장애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독립성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동일한 법령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형과 기준

장애의 종류	기준
시각 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 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정신 지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 장애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 행동 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는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 소통 장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 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 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 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2) 장애인의 성: 인권으로서의 접근

가. 장애인의 인권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밝힌 이래,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1975년에는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천부의 권리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결의하였다. 200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회의에서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안으로 ‘아태지역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며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근거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안’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2006년에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삶을 누릴 권리를 천명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 선포된 것을 장애인 인권을 위한 시발점으로 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가 장애인 인권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 비로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았던 이전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현재는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 기초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장애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 비교

	재활 패러다임 /개별적 모델	자활생활패러다임 /인권패러다임
형태	장애인 격리	사회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정의)	· 신체적 손상 · 직업기술 부족	· 전문가, 친척에 의존 · 우리 사회의 심리적, 물리적 장애물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의 위치)	· 장애인(개인)	· 환경 내 · 재활과정 · 장애인이 사는 사회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가적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장애 제거
사회의 역할 (장애인의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하는가?	전문가	장애인당사자
장애인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의학적 재활을 통해 최대한의 일상생활 수행	자립생활

나. 인권으로서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일상적인 활동의 모든 결정을 장애인 당사자가 행한다는 것으로, 근본개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활동에 있어서 더 이상 객체로서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자기결정이라는 이슈와 대치되는 것은 위험의 가치와 보호적 관점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결정에 배치되는 논리로서 위험에 대한 예방, 안전, 보호의 가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 논리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당사자의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인생에서 마땅히 겪어야 할 경험으로부터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접근은 자칫 당사자의 인간적 존엄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기결정의 원칙은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 영역의 하나인 성이라는 개념과 실제적인 성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장애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근거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 관습, 기타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성적 권리 및 결혼의 권리에 대해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제23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성적으로 미성숙하고 무성적인 존재로 이해된다. 또한 장애인의 성은 논외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장애인의 성에 대해 비장애인들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성 생활을 향유하고,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의 과정을 가지며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으로서의 성적 권리에 대한 접근은 성적 행동 및 관계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성행동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행위인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준다. 즉 성적 권리에 대한 접근은 소극적인 범위로서의 성폭력 상황과 같은 스스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에서부터 자발적 의지에 따르는 성적 행동과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범위를 포괄한다.

3)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과 성교육⁴⁾

가.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 발달과 특성

장애인의 성 발달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이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모를 비롯한 주보호자들의 과잉보호와 통제,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주변 사람과의 친밀감을 표현할 기회 부족,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의 성 발달주기와 같은 성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비장애인과 성적인 욕구는 비슷하나 제한된 환경에서 적절히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지 못하고 특히, 성 행동에 대한 일관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능도 잠재적으로 비장애인과 같다는 것이 의사들의 견해이다. 척추손상인 남성의 경우 일부가 발기 기능에 장애가 있으며 사고로 인해 청년기와 중년기에 장애인이 되면 심리적인 우울증으로 인해 발기 기능이 급속히 감퇴될 수 있다고 한다. 다니구자 아기히로(1999)는 신체적인 성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부자유스러움으로 인해 성교 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신체장애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성적 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조정 능력을 결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척수손상을 심하게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성 생활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성적 발달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다(김한경 · 박용숙 2005).

지체장애학생의 성 발달은 비장애인과 같으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며 특히 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기 어려우므로 성적 욕구를 자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성을 왜곡되게 풀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성적 발달이 늦어지거나 비슷하며 지적장애가 심할수록 더 늦어지는 경향은 있으나 신체적, 성적인 발달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러 발달 영역, 즉 사회·정서적 발달, 교육 기회, 인생 경험의 과정,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비장애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지적장애인은 사회적, 정서적, 경험적, 그리고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생물학적인 시점과 일치 하지 않는 성 발달이 나타날 수 있다(Schwier & Hingsburber, 2000). 그러므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사회 통합, 행복한 성,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으로 되어야한다.

지적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성 행동을 보면 자위행위와 접촉, 키스와 성에 관한 흥미와 같은 성적 행동이 경도 지적장애인들과 최중도 지적장애인에게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별 없이 성적 행동을 보인다(Wolfensberger, 1997. 이애란, 2000).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2차 성징에 따른 몸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사춘기 자위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며 생리 중에는 생리대의 불편함으로 자주 만지거나 빼고 싶어 한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는 비장애인의 사춘기 성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성 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이 처한 생활환경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적절한 성 행동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관찰하고, 성 행동으로 인해 생긴 문제와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전용호, 1995).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은 지능과 관계없이 정상적

4) 탁틴내일, 2013, 『중복장애 매뉴얼』에서 II. 장애인 성의 이론적 배경 참조.

으로 발달하며 성교육을 받은 지적장애인이 더 많은 독립성과 자기충족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Kupper, 1992. 전용호, 1995)

정상인과 비슷한 교육 과정을 거치는 청각장애학생 역시 성 문제는 사춘기 시절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건청인과 청각장애인은 성과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역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한계가 있어 인지 발달에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 또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성향으로 인하여 주의를 집중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시각적인 방법에 집중되는 독특한 감각적 경향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학생의 경험은 일반 학생보다 훨씬 한정되어 외부 세계의 문화를 배우는 능력에 있어서 자체가 심해 일반 청소년보다 편협한 성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병수, 2008).

시각장애학생들은 촉각을 이용한 탐색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관해 알고 있다. 가족 관계, 놀이를 통해 동성인 또래의 신체를 만져본 경험은 있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성의 신체나 성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학생은 정확한 정보와 경험이나 호기심의 결여로 성의 해부학적 특성과 기능에 관해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다(Fouke & Uhde, 1975). 시각장애학교는 대부분 기숙사 제도로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장애학생들과 서로 대화를 하거나, 접촉할 기회가 적다. 학령기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한정되므로 남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예절을 표하는 행동에 서툴고,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위축감 때문에 타인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다.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눈으로 자연스럽게 흠처보며 이성에 호기심을 가질 것을 시각장애인은 상대의 성기를 슬쩍 만져보는 등의 행동으로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수정해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에 대한 지식을 조기에 가르쳐야 한다. 자위행위나 이상 행동의 경우, 자신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켰다는 생각에서 더욱 숨어버리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촉각을 이용하므로 청결에 더욱 신경을 쓰게 하고, 사회적 통념을 알게 하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김창수, 2003)

중도·중복장애인 경우 부모나 교사가 사춘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성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장애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성 행동으로 받아들여 잘못된 지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은 무성적 존재라는 편견을 버리고 내 안의 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인수록 일관된 지도를 통해 적절한 성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도록 성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사전에 반복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

장애인의 성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성,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성은 무성적 혹은 중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혼자 있을 개인 공간이나 시간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은 비장애인의 문제 행동보다 쉽게 드러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비장애인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기만의 성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표현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애인을 사귈 기회도 거의 없는 여건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학생의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문제 행동에 치중한 성교육이 되기 쉽다.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에서 조사한 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에 대해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성에 대해 근거 없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 욕구 및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거나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성적 존재로서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 애정, 친밀감, 성적인 감각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욕구는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문화에 맞게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장애아동·청소년도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욕구를 푸는 방법을 익히지만 성 발달이 비장애인보다 느리거나 신체 발달보다 정서, 인지 발달이 느려 사회문화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관계와 장소에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발달 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존적이어서 유아적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아기처럼 늘 돌봄이 필요한 유아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장애인의 성 또한 유아적인 발달 단계에 멈추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과 ‘성’은 둘 다 사회적으로 꺼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터 팬”으로 보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성에 대해 알 기회마저 주지 못하게 된다.

셋째, 장애인은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 성 행위에 탐닉한다.

장애인은 무성(無性)적인 존재가 아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성욕을 조절하는 능력은 높아진다(윤가현, 2002). 일상 생활을 하면서 성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면 초기에는 성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 장애학생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성 행위에 탐닉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넷째, 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오히려 부적절한 성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우리는 모두 성(性)적인 존재다(김영숙, 2010). 성은 인간에게 있어 본능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 이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하지만 성교육을 통해 인지적, 신체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면 성적과잉행동으로 인해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성에 대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정보의 양과, 정보의 왜곡 정도를 분별할 수 없는 장애인이 스스로 습득한 성(性)적 지식이 쌓일 때 생기는 것이다(윤가현, 2002). 즉, TV, 인터넷, 핸드폰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성(性)적 정보들을 분별해서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연령에 맞게 자신의 성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 각각의 생활 연령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제한이나 지체장애, 감각장애로 인해 성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교육은 지식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애주기에 맞게 성을 느끼고 표현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방금 배운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교육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성교육 내용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고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이 보이는 부적절한 성 행동은 무시하고 그대로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교사나 부모가 장애학생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성 행동을 계속 지도하다 보면 오히려 행동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여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시하는 방법으로 교사나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보고도 그냥 두는 것은 그 행동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장애학생에게 둘 다 긍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며 교사나 부모에게 소외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적절한 성 행동에 대한 무시나 소외를 승인의 의미로 받아들여 적절한 성 행동인 것으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장소에 맞게 적절히 행동할 수 있도록 집단 또는 개별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문가만이 그들에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는 달리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제한된 성 역할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성적 표현이나 역할을 잘 모른다. 그래서 올바른 성적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성 태도·성 행동 교육이 중요하며 일상에서의 성교육과 병행된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실태

가.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실태

장애인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적 폭력(신체·언어적·정신적)을 의미한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주로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현재 알려진 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는 상담이나 신고에 의한 조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성폭력 피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도장애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에 주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인보다 혼자 이동이 가능한 경도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며 이런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한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장애인의 성적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항거불능을 인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011년 10월 28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장애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력한 범죄자는 가중처벌을 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특성⁵⁾

①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인은 상담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변 관계를 알아보고, 상담에 위한 도움(수화통역, 진술조력인 등)을 요청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 유형을 확인하고 개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상담·지원에 반영한다. 같은 장애라도 그 사람의 개인·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방법과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휠체어 등 보장구 지원, 의사소통 지원, 치료나 교육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평소 가족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떤지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주보호자가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숙사, 그룹홈 등에 사는지 가족·친지 등 연고는 있는지도 알아본다. 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의 편차가 크고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를 상실한

5) 사)장애인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2012), 「장애인여성성폭력, 이것부터 시작해요」pp14-30 참조

경우도 있고 교육환경도 다양하므로 교육유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반학교,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시설 내 교육 등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 최종학력도 알아본다.

② 상담·지원을 위한 필수 사항

활동지원 서비스로 피해전담 국선 변호인, 진술 조력인, 수화통역사 등이 제도화 되었으나 아직 안정화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 현재 일상생활 지원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활동보조를 주로 하지만,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지원은 가족으로부터 활동보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기존 활동보조인도 성폭력 상담·지원은 어려울 수 있다.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동 수단을 제공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지적·시각장애인 등도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계단이나 턱이 없는지, 휠체어 등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화장실과 같은 부대시설의 접근성 또한 살펴야 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도구(필기도구, 컴퓨터, 아이패드 등)나 환경(상담실의 독립성, 방음, 안전성 등)을 체크한다.

성폭력 피해 특성 상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사법절차, 피해 회복, 피해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

다. 장애인 성교육의 현황과 제언

성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되어진 특수한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일반교육과 동일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체 교육과정의 통합된 일부이다(Kluge, 1984; 정재권 · 고은, 2003:106에서 재인용). 또한 성교육은 자신의 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도와주며, 성적인 충동이나 본능적인 힘을 자신의 전체적인 영역 내로 정돈하는 것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다른 타인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성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은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해당 한다(정재권 외, 2003:107).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성학대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성교육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성교육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아동에 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한 김유리(2009)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성교육 관련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진행된 연구들도 신체발달, 위생, 임신과 출산, 이성교제, 성학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222)고 한다. 이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성의 부정적인 부분, 즉 성폭력, 임신, 성관련 질병 등을 예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공미혜, 2006:64). 이것은 성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된 의견 부족으로, 또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수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유리, 2009:220).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부모나 가족들은 장애여성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성 관련 문제를 은폐하고 성적인 존재로서 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장애 여성의 부모나 가족들은 이들이 성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또래 집단으로부터 비웃음이나 동정심을 유발하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장애여성은 또래 집단을 연결하는 사회연결망으로부터 소외되게 되고 결국 그 또래집단이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주로 여성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매력을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다움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공미혜, 2006:66). 그렇기 때문에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신체 존중감과 성적 존중감은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비장애인보다 그 정도가 강하다는 지적도 보고된다(Taleporos and McCabe, 2002; 공미혜, 2006:66에서 재인용).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 특성과 정도,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김유리, 2012; 박미숙, 2013), 둘째 일반적인 성교육 외에도 장애와 연관된 성적 건강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대인 관계 기술과 훈련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교육 이루어져야 하며(공미혜, 2006), 셋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수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김유리, 2012), 넷째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장애여성 공감, 2009; 탁틴내일, 2013).

그러므로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 권리, 성인권에 기반하여 자신의 신체와 감정, 섹슈얼리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포괄적인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성인권에 기반을 둔 성교육의 필요성

1)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2009):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성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즐거움과 안락함, 애정과 사랑의 근원이자 표현의 방식이다. 자발적이던 그렇지 않던, 많은 젊은이들은 성적으로 활발하기를 선택한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다. 부모들도 문화적 규범이나 무지, 또는 불편함 때문에 성적인 내용에 대해 자녀들과 논의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고 충분한 성교육이 요청된다.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2009)에 따르면, 성교육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더 안전한 행동을 취하는 첫 과정이자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폭넓은 활동을 의미 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 가치인 인권의 관점에 기초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2003)의 “아동은 의미 있는 사회 참여자로써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성교육에 접근한다. 이러한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은 성을 문제 혹은 위험요소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각과 달리 삶의 긍정적인 요소로서 주체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 성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성교육가이드라인은 성교육이 인간의 성적 권리에 기반을 두어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광범위하고 과학적이고 연령에 적절해야 하며 다양한 현실들과 젊은이들의 삶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것을 요청하고,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성적·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지식을 포함해 상호의존, 평등, 존중과 같은 가치를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안한다.

2) 성적권리 Sexual Rights⁶⁾

성적 권리는 국제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인권 문서에서, 일국의 의회와 법률, 인권 기준과 원칙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및 성 건강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에서 이미 인정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에 기반을 둔다.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대이며, 장애, 나이, 국적, 결혼 유무, 가족 지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인종, 민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 출신성분, 재산, 지위에 따른 어떠한 형태로든 구분, 배제, 제한의 금지를 포함한다. 성적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등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종,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견, 출신 국가 및 사회, 거주지, 재산, 출생, 장애, 연령, 국적, 결혼상태, 가족사항,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사회·경제적 상황 및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성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6) 출처 <http://www.worldsexology.org/>, 원출처 IPPF(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2008, 『Sexual rights: and IPPF declaration』

2.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위협·제한 받거나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성적 지향,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 및 실천, 젠더 정체성과 정체성의 표현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접근권과 제공을 포괄한다.

3. 자기결정권 및 신체통합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신체에 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성과 관련한 행위, 실천, 파트너, 그리고 관계에 있어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을 포괄한다.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내려진 자율적 의사결정이란 성과 관련한 모든 검사, 개입, 치료, 수술, 연구에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자율적인 동의아래 이루어진 결정을 의미한다.

4. 고문 및 학대적·비인도적·모멸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이유로 인해 고문 혹은 학대적·비인도적·모멸적 대우 및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임, 피임, 낙태 등 위험한 전통적 관습뿐만 아니라 성별, 젠더, 성적 지향, 신체적 다양성, 젠더 정체성 및 이에 대한 표현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고문 및 학대적·비인도적·모멸적인 대우를 포괄한다.

5. 모든 형태의 폭력과 강제에서 자유로울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폭력에 노출되거나 강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괴롭힘, 성적 착취와 성노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처녀성 검사 그리고 실질적·인식적 성 관습,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및 이에 대한 표현, 그리고 신체적 다양성을 이유로 행해진 폭력을 포괄한다.

6. 사생활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섹슈얼리티, 성생활, 신체, 그리고 합의된 성적 관계와 실천과 관련한 선택에 대해 일방적으로 간섭 받거나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밝히는 데 있어 자신이 통제권을 가질 권리 역시 포함한다.

7.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안전한 성적 경험을 위하여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성적) 건강을 추구할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서 섹슈얼리티는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안전한 성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포괄한다. 이는 질 높은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 및 서비스 이용자로 받아들여질 권리, 그리고 성적 건강을 비롯하여 건강을 위한 환경에 접근할 권리를 포괄한다.

8. 과학적 발전과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성적 건강을 위해 과학적 발전 및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9. 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섹슈얼리티, 성적 건강 및 성적 권리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는 독단적으로 검열·은닉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10. 교육권 및 종합적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교육 및 종합적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종합적 섹슈얼리티 교육은

교육연령에 적합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해야 하고, 인권 및 성평등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즐거움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11. 평등 및 절대적·자율적 동의를 통해 결혼 및 기타 유사한 관계를 시작·형성·종결할 권리

모든 사람은 결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결혼·동반자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절대적·자율적 결정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결혼·동반자관계 그리고 그와 유사한 관계의 시작·과정·종결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관계의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지혜택 및 기타 수급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12. 자녀 갖기 및 자녀의 수·시기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위한 정보·수단에 접근할 권리

모든 사람은 자녀 갖기 및 자녀의 수와 시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건강과 행복에 필요한 조건에 접근할 권리를 전제하며, 이는 임신, 피임, 수정능력, 임신중절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포괄한다.

13.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두되 외모, 의사소통,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권리를 포괄한다.

14.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 성적 건강 및 성적 권리에 대해 평화적으로 조직·결사·집회·시위·주장할 자유를 가진다.

15. 공무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에게는 시민·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지방·국가·지역·세계적 차원에서 능동적·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공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성적 건강을 비롯하여 자신의 안녕을 결정하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6. 사법, 법적 구제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접근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 법적 구제 및 보상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접근 가능하고 적합한 교육·입법·사법적 방법을 위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요구한다. 법적 구제는 배상, 보상금, 사회복귀, 재발방지를 통한 보상을 포괄한다.

3) 학교 성교육의 전환: 생식에 관한 정보 전달교육에서 섹슈얼리티 교육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14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한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53.3%가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학교를 통해 한 해 평균 2.39회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양정선 외, 2014). 이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학교별로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생식기와 그 기능에 대한 설명, 사춘기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성교육이며, 두 번째는 성폭력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

육이다(노수희, 2011). 201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중학생 1,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성교육 및 성에 관한 인식과 태도 조사에 따르면, 성교육의 주된 내용은 ‘성폭력과 성범죄’, ‘임신과 피임’, ‘신체의 구조와 변화’였으며, 그 외에 ‘이성교제’, ‘성매매(원조교제)’, ‘성병과 에이즈’, ‘발달단계에 따른 성심리’, ‘사랑과 성행동’, ‘성욕구 조절’, ‘대중매체의 성’이 그 뒤를 이었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학생들의 성교육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 4점 척도 상에서 평균 2.87점으로 나타나 ‘약간 도움이 되었다’의 3점에 미치지 못했다.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로는 ‘이미 아는 내용이고 재미가 없어서’(66.4%), ‘교육 시간이 부족해서’(15.4%), ‘교재 내용이 부실해서’(7.7%) 순으로 나타났다(양정선 외, 2014).

그렇지만 성에 대한 이해가 섹스sex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로 전환되면서, 성교육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성교육이 국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다(UNESCO, 2009).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의 중심축도 성sex에 관한 정보 전달교육에서 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섹슈얼리티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탁틴내일, 2013).

<성교육의 내용 측면에서의 변화>

이 전	이 후
Sex 중심	Sexuality 중심
지식과 지침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관과 실천을 중시 ▶ 참여·존중·젠더를 중심에 두는 수업 경영
단편적 행동 지침 전달	삶·인간관계 경영의 원칙에 대한 고민
피해 예방	위험에 대한 적극적 통제
개인의 행동 여부	성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고민

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을 위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2월 2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이후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문화 대책분과위원회에서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확대를 결정하였고, 2016년 현재 전국에 총 58개소(고정형 49, 이동형 9)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질 확보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2007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프로그램 매뉴얼 1.0(Sexuality About Youth, 이하 SAY, ver 1.0)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후 2010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프로그램 매뉴얼 1.1(SAY ver 1.1)을,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프로그램 매뉴얼 1.2(SAY ver 1.2), 2015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프로그램 매뉴얼 2.0(SAY ver 2.0)이 개발되었다. 2010년

개발된 SAY ver 1.1에서는 성범죄 피해에 자주 노출되는 지적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특수집단에 대한 교육필요성 증가 및 지역사회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상승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뉴얼 상에 '지적장애 청소년 성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뉴얼을 보완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사)탁틴내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인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소하였다. (사)탁틴내일은 기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장애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2012년에 장애·비장애인 통합성교육매뉴얼 및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과 교구를 개발하였으나 이는 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회기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서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 공간 자체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 한 성교육장으로서 '놀이터'라는 공간개념에 기반해 성교육공간이 구성되었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강의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의 역동성이 증가하는 '체험' 학습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필요한 교육에 대해 오감체험을 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학교 현장과 다른 차이점을 갖게 된다.(2015 say ver2, p19)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기존의 성문화센터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개소되었다. 기존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비장애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청소년 인구를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하여 보면, 압도적으로 비장애인 청소년 인구가 많기는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콘텐츠가 비장애인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장애청소년에게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장애·비장애인 통합청소년성교육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집은 장애특성을 가진 청소년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육자원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발되었다. 즉, 현재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장애·비장애의 특성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발이 시도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을 확대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용자원도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히 협소하다. 장애인이기 이전에 발달과정상 청소년, 성인 혹은 노년기에 따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지위로는 자녀, 부모, 학생 등의 신분을 가진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장애'라는 특성만을 부각하여 바라보고 그 '장애'라는 특성 외에 다른 특성들을 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장애청소년, 비재학청소년, 성소수청소년들도 현재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수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기존 공간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서 소수의 특성이 이용권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즉, 동일한 공간에서 장애·비장애가 이용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이 되어야 하며, 그 공간에서의 이용목적이 교육이라면, 이용서비스 역시 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을 목적과 의미 차원에서 보면 ‘공동체 교육’ 또는 ‘교육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체(community)란 개념은 누구도 분리시키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며, 구성원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참여를 강조하고, 상호의존과 지원으로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극대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한국통합교육학회, 2010)

교육의 목적이 조화로운 인간 발달을 통해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면, 통합교육은 개인차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사회의 주류에 완전히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보장, 학습자 다양성의 인정과 수용, 구성원들 간의 조화 극대화(정대영, 2004, 2005b)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또는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2) 중랑 ‘탁틴talk’에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하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59개소(고정형 48개, 이동형 11개) 중 장애·비장애 통합을 목적으로 체험관이 구성된 곳은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talk’이 유일하며, 나머지 58개소는 센터의 상황에 따라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타 센터로 교육연계를 하고 있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2013)의 교구 구입 및 실무자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4월 말부터 교육이 진행된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talk’의 2015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장애청소년 교육 이용비율이 전체 청소년 이용비율 중 46%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전체 청소년 중 장애청소년 교육이용비율이 7% 증가한 53%였다. 이는 (사)탁틴내일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지역 성문화센터와 비교해 볼 때도 ‘탁틴talk’의 장애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그동안 장애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나, 교육을 위해 이용할 전문교육 공간이 부재 혹은 부족하였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교육, 문화, 이동의 자유 등)를 반영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다. 성관련 인권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해가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주의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희박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장애나 성적지향성, 삶의 환경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삶의 공간 장소로서 통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탁틴talk' 체험관 성교육 이용자 비율

연 도	총 교육건수 및 인원 수	비 장 애	장 애
2015	593건/7,556명	321건(54%)/4,900명(65%)	272건(46%)/2,656명(35%)
2016(1월~6월)	353건/7,490명	166건(47%)/6,186명(83%)	187건(53%)/1,304명(17%)

3) 교육에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1981년 ‘국제연맹 장애자의 해’ 이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한다는 ‘Normalization’의 사고방식이 뿌리내렸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배리어(Barrier)라고 하고, 이런 장벽들을 없애는 것을 ‘Barrier Free(무장벽)’라고 한다.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나 도로, 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이다. 이 용어는 1974년 6월 국제연합(UN) 장애인생활 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에는 물리적·제도적인 배리어 프리는 물론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0년 미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미국 국민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법안에는 장애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특별한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하던 간에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소외나 배제, 제약이 없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윤덕수 한양대 2015)

현재 우리사회에서 ‘배리어 프리’가 실천되고 있는 공간은 주로 장애인주차장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영화제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였다. 그러나 이는 극히 소수의 형태이다. 아직 우리나라 ‘배리어 프리’ 운동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장애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교육적 공간이 극히 드물다. 성교육현장의 활동가들은 누구나 성교육의 중요성과 연령별·대상별 전문화된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가 중요함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간을 둘러보면 많은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비장애인청소년 중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실제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은 비장애인청소년들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장애인청소년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 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장애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장애청소년들은 장애의 특성상 친밀감의 표현이 ‘성적 공격행위’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혹은 관계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생애적인 차원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

5.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개념과 목적

1)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개념

가장 최근의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3) 제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학생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모든 사람이 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비록 심한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한 학교·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함께 교육·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인종,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능력에 기초해 인간을 판단하고 차별하던 것에서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을 말한다.(송경선, 2008)

위 통합교육의 정의에 근거하고, 그동안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동일 교육시간 내에 장애·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하는 혼성 그룹일 경우 굳이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성교육이 진행되는 것, 둘째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장애청소년 전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셋째 공간적 개념으로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특수학급 대상이 포함된 청소년집단의 교육 안에 장애청소년이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청소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들로만 교육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이 성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흡연과 음주가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이 교육을 들은 비장애인들은 특수학급의 친구 부모들의 흡연과 음주로 인해 장애친구가 태어났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면 인공유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교육 중 ‘인공임신중절’ 수술 부분에 대해 설명 할 때, 굳이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예로 장애태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아직 인지적으로 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차하면, 특수학급의 친구들에 대해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남성의 경우는 성인기에 접어들어도 불임이 된다. 그런데 다운증후군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생명방에서 신생아 안아보기 체험을 하는 과정에 ‘미래의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인사해보세요’라고 잘못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청소년들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성별달이 나타나지만,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장애청소년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이 취약하거나, 상황판단이 어려우며,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과 행동의 조절력이 떨어지며 후천적 퇴행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반드시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성교육전문가 및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성교육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성 기술 학습이 미흡하여 장애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성적표현과 성적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통합청소년문화센터는 장애청소년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교육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이며,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 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으로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장으로서의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청소년의 통합을 위한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전담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통합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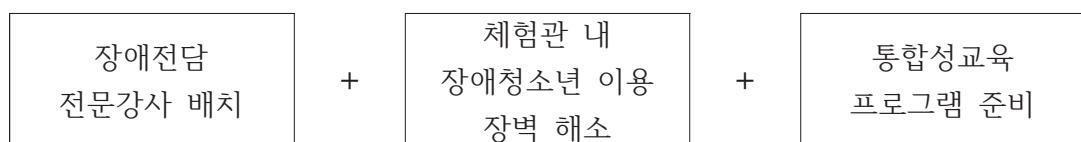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학생이 속해 있는 일반학교 내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을 함께 성교육 하는 것이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이다.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의 목적은 성을 주제로 한 비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특히 비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性)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며, 장애학생에게 있어서는 비장애인과의 교육활동을 통해 성과 관련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모두가 장차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성적존재로서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게 할 바탕을 마련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통합청소년문화센터’의 목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 ▶ 장애 또는 비장애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만든다.
- ▶ 교육 참여자의 장애특수성 및 성적지향성 등이 존중 되는 성교육을 실시한다.
- ▶ 일상생활 공간에서 성교육기회 부재로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비장애 또래 혹은 주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적인 장애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통합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II. 통합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II. 통합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1. 고정형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고정형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에 따라 크게 5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다음의 표는 교육대상에 따른 주요특성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구성내용과 주요핵심사항 및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주 요 특 성	프로그램 구성	핵심사항	주 의 사 항
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 활동 경험 부족 2. 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 3. 가족중심 생활로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4. 관계의 따른 관계기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구성과 나에 대해 알아보기 2. 다양한 관계 및 상황에 따른 관계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속의 상황 및 장소에 따른 관계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시간 내에 성에 대한 강조교육은 성에 대한 욕구와 자극이 커질 수 있음 2. 자주 만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개념을 이해해야 함. 3. 사회성 향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계기술 학습
초고 및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부적응 표출 됨 2. 사춘기 초기현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 3. 좋아하는 감정이 신체 접촉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호감의 표현과 성적인 행동 구분 어려움 4. 타인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춘기 변화 이해 2. 장소에 따른 적절한 성행동 3. 또래관계 맺기 4. 도움 요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만의 사춘기 감정 이해하기 2. 상대방 감정 이해하기 3. 또래관계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증폭시키지 않고 읽어주기 2. 나의 친밀감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느낌으로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기 준비시기 2. 감정 및 욕구 표현 미흡으로 심리적 위축이 큼 3. 타인의 감정 읽기 능력이 미흡 4. 반복학습에 장기간 노출로 습관적 행동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관계와 나의 역할 찾아보기 2. 즐거운 일상을 위해 데이트 계획 혹은 취미 찾아보기 3. 친구와 애인 구별하기 4. 나의 의사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2. 좋아하는 이상형과 사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 (예: 이상형은 연예인이지만, 사귀거나 결혼은 어려움) 3. 독립된 감정과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아 성취 경험 부족이 무기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독립된 감정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익히기 3.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권리 존중 필요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적·물리적 독립이 필요하나, 보호자에 의해 지속적 보호 상태임 2.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욕구가 크지만 좌절도 동시에 겪음 3. 성인기임에도 주변인으로부터 성인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유아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애인과 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차이를 알고 관계에 맞는 적절한 행동 2. 성 관계와 그에 따른 과정과 결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받기 2. 좋아하는 감정 표현하기 3.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교육 대상자보다 성을 토론하는 상대자로 존중해야 함 2. 나의 성욕구 인정하기 3. 성욕구과 성폭력 구분하기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으로서 경험한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음 2. 보호자의 욕구보다 프로그램(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참여로 참가할 가능성이 많음. 3. 성인장애인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 간 성을 주제로 대화하기 2. 가족의 여가활동 만들어 보기 3. 자녀의 의사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성적표현 및 성적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2. 성인기의 성문화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으로서 경험한 주변의 시선 극복하기 2. 자녀의 성욕구 인정하기

1)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

나도 할 수 있어요

주제	'나' 그리고 '우리'	시간	100분
목표	1.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 신체의 정확한 명칭과 역할을 익힐 수 있다. 3. 일상생활 관계기술과 적절한 성 표현을 익힐 수 있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입	1. 인사 및 친밀감 형성하기 1) 강사, 교육장 및 체험내용 소개 2) 교육 참여자 자기소개 3) 안전교육	음악, PPT '불이야' 그림	교육장 (15분)
전개	1. 우리 몸의 이름과 역할 알아보기 1) 머리카락, 눈, 코, 입, 귀, 손, 발, 피부, 생식기 2) 남녀의 생식기 차이 이해	신체그림판, 신체사진, 이름	교육장 (10분)
	2. 내가 아기였을 때 : 1) 내가 태아였을 때를 상상해보기 2)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	동물사진 또는 인형, 아기인형	자궁방 (10분)
쉬는 시간			(10분)
마무리	3. 소중한 나를 위해 해야 할 것 1) 학교 2) 집 3) 거리 4) 이럴 땐 얘기를 해야 해요 5) 나의 장점 찾기	스티커, 대중교통 사진, 에스컬레이터 사진, 즉석사진기	교육장 (45분)
	1. 좋아요 게임으로 마무리		우주방 (10분)

나도 할 수 있어요

I. 준비사항

1. 준비물 : 음악(교육 전 사용),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PPT, ‘불’ 그림, 신체그림판, 신체그림 스티커, 속옷 스티커 등
2. 자리배열 : 반원형으로 둘러앉는다.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바닥에 앉도록 한다. 바닥에 앉기 어려운 친구는 훨체어, 의자를 제공 한다

II. 진행과정

● 도입활동

1. 강사와 교육 참여자 간 눈 맞추며 인사하기

- 교육 시작 전 화장실 다녀올 시간 주기
- 강사 및 성문화센터 소개
- 교육 참여자 자기소개 : 기분이나 옷 색깔 등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저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예요”
“저는 오늘 기분이 무척 좋은 ○○이예요”

2. 강사의 교육과정 소개 및 교육 참여자의 교육 기대 내용 듣고 피드백하기

- 교육진행 내용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참여자가 기대하는 교육내용을 듣고 피드백하기
“○○이가 오늘 교육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열심히 활동하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이는 오늘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오늘 처음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줄 거죠?”

3. 비상상황 발생 시 다함께 해야 할 일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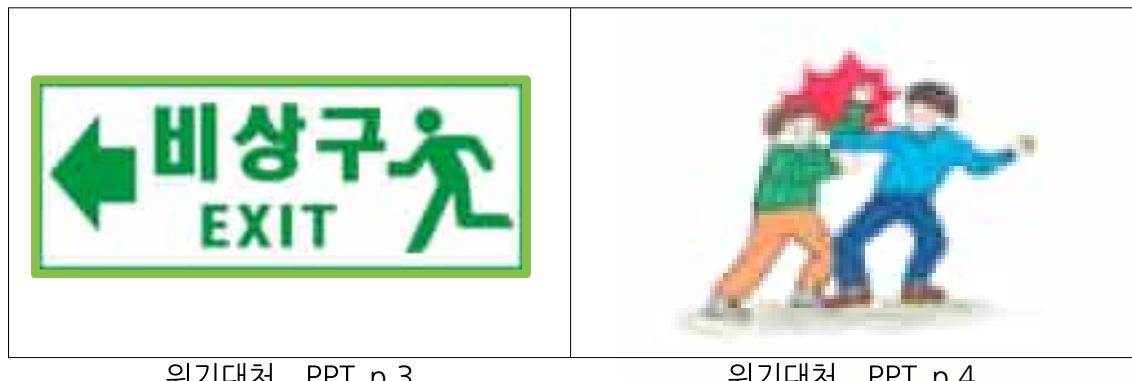
- ‘비상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질문하기
- 교육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 알아보기 : 화재, 교육생 부상, 교육생끼리 싸움, 화장실 사용 등

-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질문하기
 - 화재 발생 시 ‘불이야’를 외치고, 비상구 앞으로 모이는 약속 정하기
- ☺ Tip 1 : 교육 신청 시 교육 참여자의 이름을 미리 받아놓는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파악된 명단을 통해 이름표를 만들어 놓는다. 이때 강사도 똑같은 이름표를 만들어서 교육 참여자와 같은 위치에 부착한다. 가능한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것이 좋으므로, 작은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손에 들고 활용해도 좋다.
- ☺ Tip 2 : 불 그림판’을 만들어 놓고, ‘소중한 나를 위해 해야 할 것’ 시간에 강사가 교육 참여자 중 한명에게 ‘불 그림판’을 제시하고, ‘불이야’를 외치고, 비상구(또는 진행자) 앞으로 모이는 상황을 연습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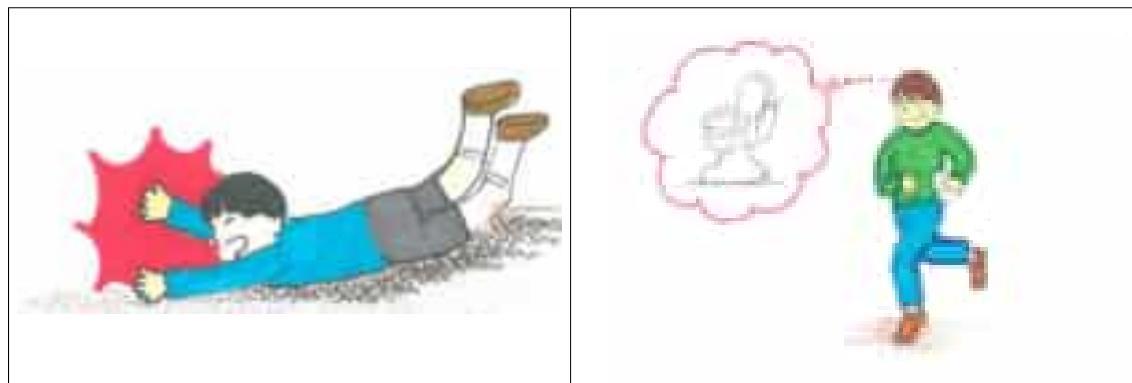
위기대처 PPT p.1

위기대처 PPT p.1



위기대처 PPT p.3

위기대처 PPT p.4



위기대처 PPT p.5

위기대처 PPT p.6

● 전개활동

1. 우리 몸의 이름과 역할 알아보기

- 신체그림판을 교육 참여자 앞에 놓고, 신체그림 스티커를 나눠준다.
- 신체그림판에 신체그림 붙일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역할놀이를 진행한다.
(ex) ‘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교육 참여자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완성된 신체 그림판을 보면서 남녀 신체 차이를 설명한다.
-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두 소중한 것임을 설명한다.
- 마무리 시 생식기 그림 중 자궁그림을 보며, 출산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자궁방 체험으로 연결 짓는다.



2. 내가 아기였을 때

- 내가 아기였을 때를 상상해보기
- 내가 아플 때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 해보기
-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있음을 설명
-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사람, 강아지, 고양이 등)는 소중함에 대해 설명하기
- 내 주변에 생명이 있는 것 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와 그 이유 얘기해보기
- 의사표현이 안되거나, 표현이 어려운 교육생은 강사가 직접 표현해주기
(ex) (마주보고 손을 흔들며 혹은 손을 가볍게 잡거나, 살짝 안아주면서)
○○야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가워~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고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마워~

☺ Tip 1 : 성문화센터마다 공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궁방 체험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외로 한다.

3. 소중한 나를 위해 해야 할 것

- 소중한 ‘나’는 혼자 살지 않아요. 집에서는 가족과 학교에서는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요.
- 상황별 관계기술에 대해 질문한다.

1) 학교

-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ex) 학교에 책을 안 갖고 왔어요. : ○○야 같이 보지 않을래?
-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ex) 내가 볼 일을 다 보면 꼭 물을 내려야 해요. 그리고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어요.
-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워요. 그리고 세면대에 가서 양치질을 해요.

☺ Tip 1 : 화장실 이용방법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집

- 닫혀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 엄마가 화장실에 있어요? 똑똑 노크를 해요.
- 배가 고플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ex) (배를 만지면서) 배가 고파요.
-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해요
(ex) 외출했다 돌아오면 양말을 벗고 세탁기에 넣어요.

3) 거리

-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ex) 미안해요.

- 버스나 지하철에서 뛰지 않아요.
-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줄을 서서 타요.

☺ Tip 1 :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것을 반드시 얘기한다.



대중교통



공공이용 시설물

4) 이럴 땐 얘기를 해야 해요

-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

(ex) 예쁘다고 칭찬해 주면서 내 몸을 만지는데, 간질간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ex)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내 허벅지를 만져요.

5) 거울방에 들어간 친구는 나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꼭 한 개 이상 찾아야 해요.

- 거울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찾고, 친구들에게 찾은 장점을 얘기한다.

☺ Tip 1 : 의사표현이 어려운 교육생에게는 거울방에서 나오면 스티커를 주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 붙여보게 한다.

☺ Tip 2 : 장점 찾기 또는 스티커를 붙인 교육생에게는 ‘너는 전부 멋져’라고 칭찬하고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준다.



스티커

6) 기타 활용

☺ Tip 1 : 체험관 공간에 문을 의도적으로 닫아 놓고 노크연습을 한다.

☺ Tip 2 : 이 과정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고, 강사는 참여자들의 활동 모습을 관찰하면서 같이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준다. 보조강사로 인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 마무리 활동

1. ‘좋아요’ 게임 진행

- 모두가 동그랗게 모여 서서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표현하기
-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인사만 한다.
- 자연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 : 파이팅(손바닥 마주치기), 악수, 어깨동무, 가볍게 안아주기 등

☞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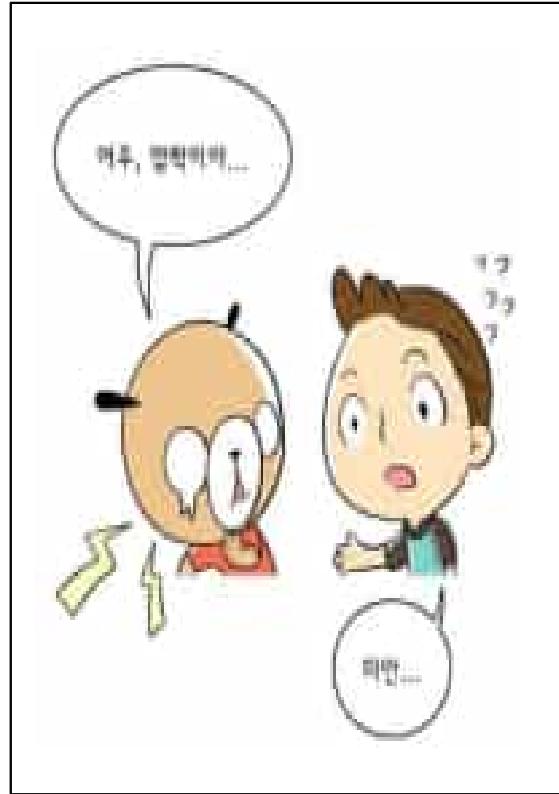
출처 :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53화 중 일부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59934&no=53>)

1



2



3



4



5

나라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소리도, 바위 친들도 늘개파지 많아.

그러면 나호자 같다느껴지지?

6



분명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이!

7

누가!! 널!! 건드린 느낌!!



8

하이이이이이이



그러니 할리장애인은
손가락만으로도
놀릴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이건 예민한 게 아니라 달연한 거야...

2)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 프로그램

톡! 톡! 성장이야기

주제	사춘기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관계기술을 익힌다.	시간	100분
목 표	1. 사춘기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황에 맞는 관계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 입	1. 인사 및 친밀감 형성하기 1) 강사와 교육 참여자 간 인사 2) 체험관 안전 교육 3) 나를 소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환영문구) - 안전영상 -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지 	교육장 (15분)
	1. 사춘기변화 이해하기 2. 사춘기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처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 그림카드 - 사춘기 마법상자 	사춘기 방 (20분)
	3. 장소에 따른 약속과 행동 1) 가정 안에서 생활 행동 2) 공공장소 약속과 행동 3) 함께 있으면 즐겁고 좋은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야 좋은 친구!' 카드 - 칭찬 스티커 	집대연애 (20분)
	쉬는 시간		(10분)
	4. 다양한 감정 표현해 보기 1) 상황에 맞는 감정표현하기 2) 성적의사결정 훈련(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3)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표정 - 다양한 상황판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 속의 성 (25분)
마무리	1. 좋아요 게임으로 마무리		우주방 (10분)

톡! 톡! 성장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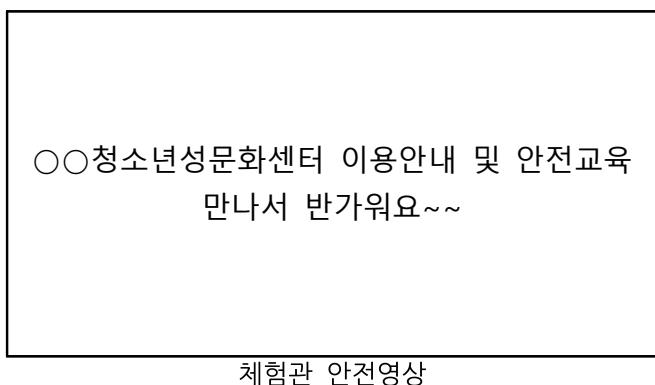
I. 준비사항

- 준비물 : 나를 소개 합니다 활동지, 사춘기 그림카드, 사춘기 마법상자,
나는야 좋은 친구! 카드, 칭찬 스티커, 표정그림 주사위, 다양한 상황판

II. 진행과정

● 도입활동 : 인사 및 친밀감 형성하기

- 선생님과 교육 참여자들 눈 마주치며 인사
- 체험관 안전 영상 시청



체험관 안전영상

3. 나를 소개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음식, 드라마, 좋아하는 선생님, 우울할 때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등에 대해 5가지로 나를 소개한다. (ex) 나는 돈까스를 먹을 때 너무 행복해.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지
(경기도청소년문화센터 자료 참조)

● 전개활동

1. 사춘기란?

1) 사춘기 그림카드 사용 : 몸 변화 알기

사춘기라고 들어 봤어요? 지금 자신이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지금 사춘기라고 생각했는지? 등을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ex) 벌써 사춘기인 친구도 있고, 사춘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그럼 사춘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림판을 통해 좀 더 알아볼까요?

- 사춘기 그림카드를 보여주면서 몸의 성장과정을 설명한다.
- 음모, 수염, 겨드랑이 털 등에 대한 설명과 털이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 변성기에 대해 설명한다.
- 몽정과 유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월경에 대해 설명한다.
- 몽정과 월경의 시작 시기는 개인차가 있으며 몽정은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설명한다.

☺ Tip 1 : 장애의 특성으로 생리를 하지 않거나 불임인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을 한다고 설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춘기 그림카드

(2013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 경도장애를 중심으로」 참조 / p63~64)

2. 사춘기 마법 상자를 통한 사춘기 대처법 알기

- 파우치에 들어 있는 물건을 마법 상자에 넣어둔다.
- 마법 상자 속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어떤 물건인지 알아 맞춰본다.
- 이름과 용도,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고 발표하면서 물건의 적절한 사용법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남녀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성적호기심(사랑 포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사춘기 서랍

사춘기 마법상자

◎ TIP 1. 각 센터에 사춘기 서랍 등 교구가 없는 경우 바구니 등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다.

3. 장소에 따른 약속과 행동

1) 가정 안에서 생활행동

-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올 때 벗은 몸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 우리 집 빨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학교에 다녀오거나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공간모형 이미지

(2013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 중복장애인 중심으로」 참조 / 5회기)

2)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행동

-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복지관 학교, 백화점, 마트 등 공공장소 그림을 보여준다.)
- 화장실이 급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나요?
- 화장실이 급하다고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화장실에서 볼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급하다고 옷을 벗으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행동은 괜찮을까요?

- 생리대를 교환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음경이 커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음식점에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 공연을 보러 갔는데 신이 나서 친구들과 큰소리로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 소변이 급한데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공원에서 소변을 봐도 될까요?



역할극 배경천 이미지

(2013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 중복장애를 중심으로」 참조 / 6회기)

3) 함께 있으면 즐겁고 좋은 친구

-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 나는 어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즐거울까요?
 - 단어스티커 주인을 찾아주세요.
- ▶ 아래 단어스티커에 맞는 친구를 찾아서, 팔이나 손등 등 친구가 허락하는 곳에 붙여 준다.
- 스티커 주인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하기
(ex) ○○야! 넌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고마워!
○○야! 나를 보면 잘 웃어주어서 난 네가 참 좋아!

잘 웃어주는 친구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친구
재미있는 친구	칭찬을 잘 해주는 친구	단정하고 예의바른 친구
화를 많이 안내는 친구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친구	인사를 잘 하는 친구

◎ TIP : 스티커를 못 받은 친구가 없도록 강사가 스티커 붙여주며 칭찬해준다.

4. 다양한 감정 표현해 보기

1) 상황에 맞는 감정표현하기

- 상황그림카드 중 그림 1장을 뽑는다.
- 뽑은 상황그림에 대해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해 본다.

2) 성적의사결정 훈련(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

- 친구가 사귀자고 하는데 저는 사귀기 싫어요. 어떻게 거절을 할까요?
- 친구와 주말에 놀러가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기

- 아프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 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얘기할까요?
- 배가 고프면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 TIP : 교육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토론 또는 교육연극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성폭력의 이해

(2013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 경도장애를 중심으로」 참조 / 9회기)

● 마무리활동

1. 좋아요 게임

'좋아요' 게임: 모두가 동그랗게 모여 서서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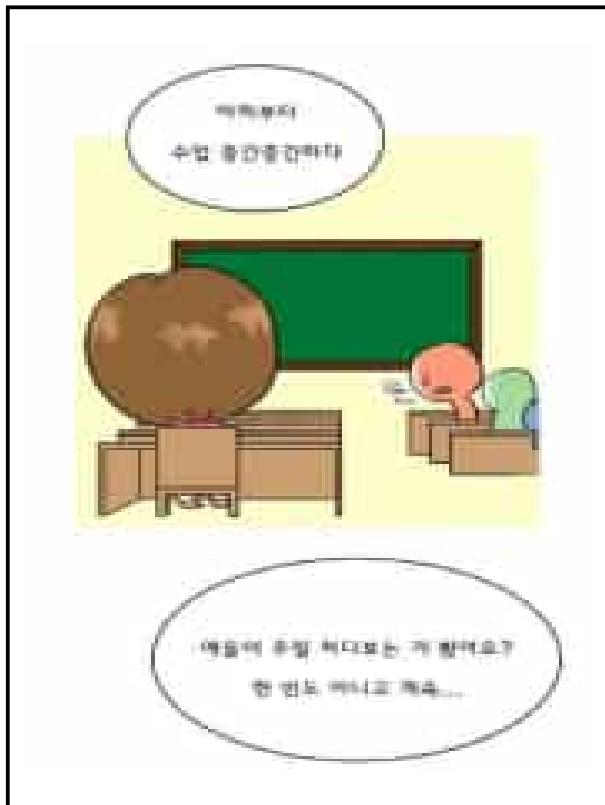
-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인사만 한다.
-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 : 파이팅(손뼉 마주치기), 악수, 어깨동무, 가볍게 안아 주기 등

☞ 생각해 보기

출처 :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 57화 중 일부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59934&no=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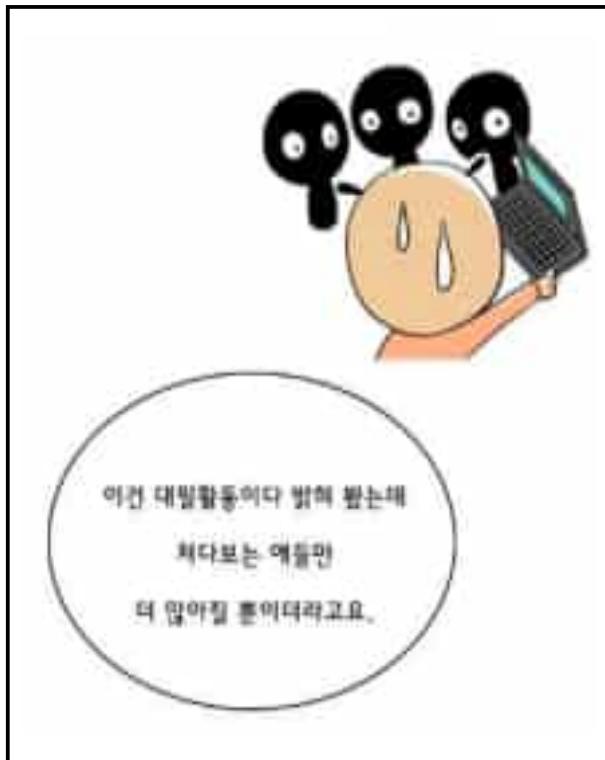
1



2



3



4



3) 고등학생 프로그램



10대 당당하게 관계 맺기

주제	관계에 따른 표현방식과 의사소통 향상	시간	100분
목표	1. 타인에 대한 존중과 또래관계에 따른 적절한 표현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 2.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및 자기결정권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입	1. 인사 및 마음열기 1) 체험관 안전 교육 2) 활동내용 안내 및 가위바위보 게임 2. 나를 소개하기	- PPT (환영문구, 안전교육관련 내용)	교육장 (20분)
전개	1. 특별한 선물 1) 자기 생일 얘기해보기 2)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생일 얘기해보기 3) 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 고르기 4) 나에게 보내는 카드 작성하고 전달하기	- 다양한 물건카드 - 축하메시지용 카드 - 필기도구	생명방 (20분)
	2.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안전한 관계 찾기 1) 일상에서 좋은 관계 맺기 2)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3) 안전한 관계 찾아보기	활동그림	사회속의 성 (15분)
	쉬는 시간		(10분)
마무리	3. 알콩달콩 나의 즐거운 생활 1) 나들이 또는 데이트 계획 세우기 2) 친구와 애인 구별하기 3) 의사표현 하기 4) 나의 취미 찾기	- 필기도구 - 스케치북 - 스킨십 카드	십대연애 (30분)
	1. 우주 속의 나 1) 나, 너,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존재 2) 좋아요 게임으로 마무리		우주방 (10분)

10대 당당하게 관계 맺기

I. 준비사항

- 준비물 : 다양한 물건카드, 축하메시지용 카드, 필기도구, 스케치북, 활동그림, 스킨십 카드
- 자리배열 : 반원형으로 둘러앉는다.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바닥에 앉도록 한다. 바닥에 앉기 어려운 친구는 훨체어, 의자를 제공한다.(센터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배열 가능)

II. 진행과정

● 도입활동 : 인사 및 친밀감 형성하기

1. 도입

- 선생님과 학생들 눈 마주치며 인사하고 간단하게 체험관 안전교육을 한다.

○○청소년문화센터 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만나서 반가워요”

체험관 안전영상

- 활동내용 소개 및 ‘가위, 바위, 보’게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이긴 사람은 칭찬에 대해 고마워~ 인사하기
 - 짹 바꿔가며 3~4회 진행
- 자기소개 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부모님, 친구, 선생님 등),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앞으로 받고 싶은 선물,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 또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다.

● 전개활동

1. 특별한 선물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내가 태어난 소중한 날(생일)! 생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

- 자기 생일을 얘기해 본다.
 -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 생일은? (가족, 친구 등)
 - 각자 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림카드 중에서 골라본다.
 - 나에게 보내는 카드(축하메시지용)를 작성한다. 카드작성이 끝나면 ‘지금은 카드를 내가 작성한 거지만, 이런 카드를 누구에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을 질문한다.
 - 지금은 ○○이 없으니, 선생님이 대신 카드를 주고 싶어요. 받아줄래요? 라며 카드를 전달한다.
- ☺ Tip 1 : 케이크 모형(「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 중복장애를 중심으로」 교구)을 들고 다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다.
- ☺ Tip 2 : 글, 그림 등 교육생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자기표현이 어려운 교육생은 강사나 인솔교사가 카드 작성을 도와준다.
- ☺ Tip 3 : 작성이 끝난 카드는 교육생에게 선물로 준다.





2.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안전한 관계 찾기

-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참조

1) 일상에서 좋은 관계 맺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주변에 다양한 관계가 있으며, 좋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가 문자나 전화를 했을 때 잘 받아주고 답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 노래방에 가고 싶을 땐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요?
-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 학교에서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 나의 이상형을 길거리에서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 친구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 인터넷(핸드폰 채팅사이트)에서 연락하던 사람이 만나자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 버스 안에서 옆 사람 허벅지를 만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 Tip 1 : 2~3개 주제에 대해 교육연극으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2)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동생은 신발을 정리해요. 나는 화분에 물을 주어요.
- 아빠는 세탁기를 돌려요. 나는 빨래를 널어요.
- 엄마는 상을 차려요. 나는 수저를 놓아요.
- 아빠는 청소기를 돌려요. 나는 설거지를 해요.
- 복지관 선생님은 바닥을 쓸어요, 나는 책상을 닦아요.
- 친구가 짐이 많아요. 내가 같이 들어줘요.
-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해요.
- 친구가 괴롭힘을 당해요. 내가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 학교에서 친구가 다쳤어요. 같이 보건실로 가요.
-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놀려요. 놀리는 친구에게 그만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주변에 함께 일하고 관계의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생각해봐요.

☺ Tip 1 : 누군가와 함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본다.

☺ Tip 2 : 함께 하는 일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우리 주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안전한 관계 찾아보기

- 가족, 선생님, 친구, 117(112)
-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족, 친구, 엄마친구, 이웃 사람, 택배기사, 복지관 선생님, 소방관, 경찰관 등.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친구, 학교나 복지관 담당 선생님, 117경찰관들이 있어요.

3. 알콩달콩 나의 즐거운 생활

-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경도장애인학생을 중심으로) 참조(p.78~83)

1) 나들이 또는 데이트 계획 세우기

- 팀을 나눈다. (친구끼리 놀고 싶은 사람, 애인과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 등)
- 친구끼리는 같이 나들이 계획, 애인과 데이트하고 싶은 팀은 데이트코스를 계획한다.
-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교육생들이 팀별로 발표를 한다.

2) 친구와 애인 구별하기

발표가 끝나면 강사는 친구와 애인사이에 할 수 있는 표현, 스킨십을 설명한다.

어깨에 기대기	손잡기	팔짱끼기	허리 감싸기	머리 쓰다듬기
포옹	무릎베개	성관계	손 흔들어 인사	어깨동무
하이파이브	진한키스	볼, 손등에 뿌뽀	무릎에 앓기	가벼운 뿌뽀
업어주기	마주보기	귀 만지기	옷 위로 가슴만지기	손깍지 끼기
어깨 토닥이기	엉덩이 만지기	옷 속으로 가슴만지기	허벅지 쓰다듬기	팔뚝 만지기

스킨십 카드



3) 의사 표현하기

- 부모님에게 나들이 또는 데이트 계획 알리기
- 부모님에게 용돈 요청하기
- 친구에게 놀러가자고 말해보기
- 애인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 (ex) ○○아~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 놀러가기 싫거나 데이트하기 싫을 때 나의 의사 표현하기
 - (ex) ○○아~ 미안해. 나는 오늘은 놀고(데이트) 싶지 않아.
 - 아~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해. 우리 다음에 놀자(데이트 하자).

☺ Tip 1 : 의사 표현하기 부분은 한 가지씩 돌아가며 강사가 상대역이 되어 역할극으로 진행해 본다.

4) 나의 취미 찾기

-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있을 때 각자 시간 보내는 방법 발표하기
- 다양한 취미 활동 찾아보기
- 현재 나의 취미가 있는 친구는 자신의 취미에 대해 발표
- 취미가 없는 친구는 취미 활동 종류 중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선택하기

컴퓨터게임	영화보기	축구하기	노래 부르기
식물 기르기	사진 찍기	산책하기	TV보기
춤추기(댄스)	친구와 수다 떨기	볼링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	비즈공예	모형 조립하기

● 마무리활동

1. 나, 너,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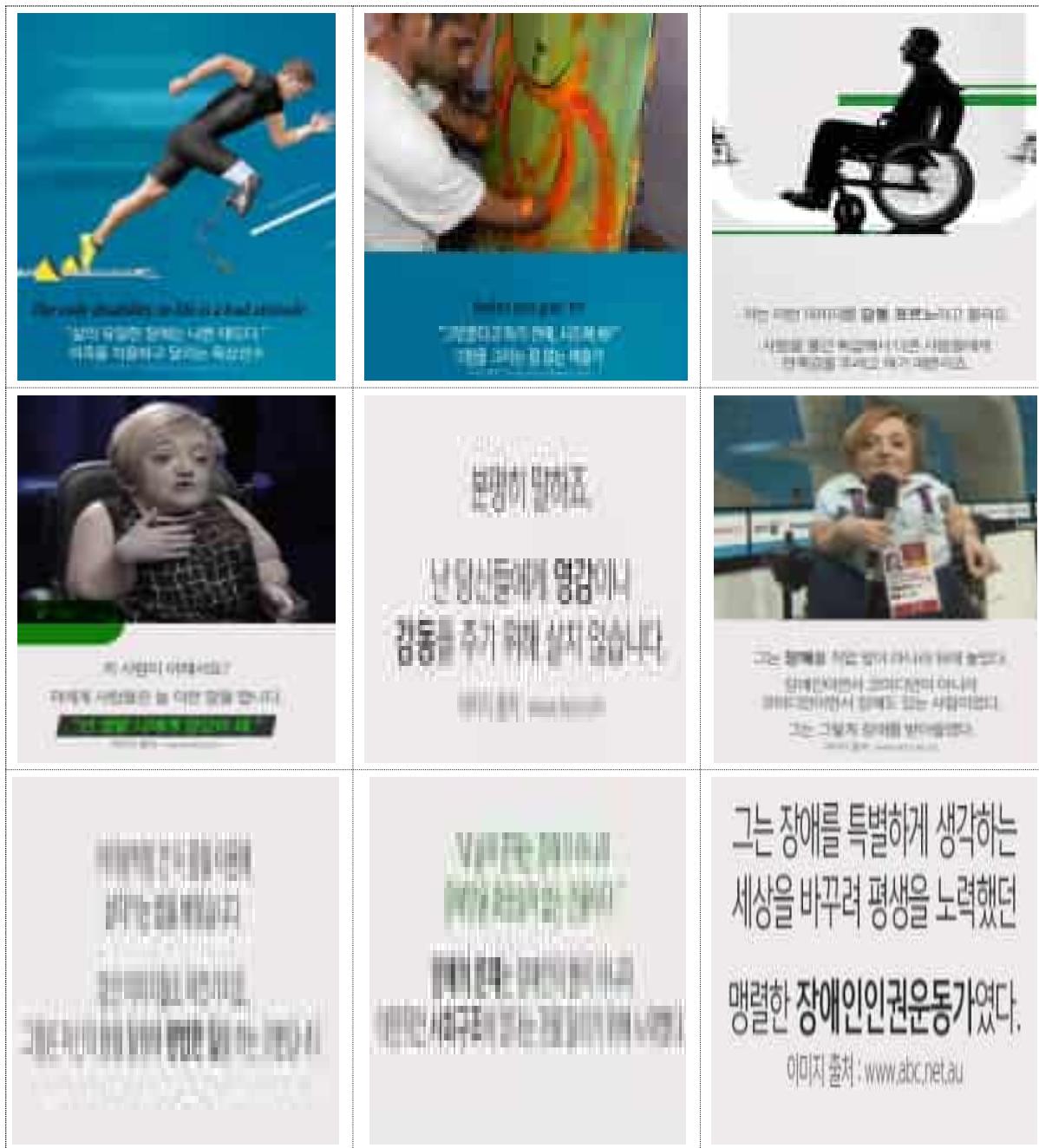
편안한 자세로 우주의 빛나는 별을 보며 나, 너,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 준다.

2. ‘좋아요’ 게임

‘좋아요’ 게임: 모두가 동그랗게 모여 서서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표현한다.

-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인사만 한다.
-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 : 파이팅(손뼉 마주치기), 악수, 어깨동무, 가볍게 안아 주기 등

☞ 생각해 보기(출처: <http://1boon.kakao.com/awake/bookdigest87>)



저는 장애가 영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으로 산다고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스텔라 영, TED 강연 중-

2014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주도식 드레스 코드는
'재미있는, 멋진(fabulous)' 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왔지 오래 살려고 온 게 아니야 ”

4) 장애 성인 프로그램 1코스

친구와 애인 사이

주제	친구와 애인 사이	시간	100분
목표	1. 친밀감과 성적 표현의 차이를 안다. 2. 동료관계의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법을 익힌다. 3. 애인과 데이트 중 대화법을 익힌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 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입	1. 인사나누기 2. 안전교육 3. 성에 대한 느낌 나누기	PPT (스킨십장면)	교육장 (15분)
	1. 두근두근! 데이트 상상해보기 - 관계별 감정표현 방법을 익히고 연습해보기		연애방 (35분)
전개	휴식 (10분)		(10분)
	2. 동료와 애인의 차이 - 관계에 따른 성표현 차이 알기 3. 데이트 준비하기 - 데이트에 필요한 물품 골라 이야기 나누기	그림 자료 (같은 그림 2장씩)	사회방 (30분)
마무리	1. '좋아요' 게임 -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친밀감 표현하기		우주방 (10분)

친구와 애인 사이

I. 준비사항

- 준비물 :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PPT, '불' 그림, 친밀감과 성적표현 그림 자료(2장씩), 데이트 물품(교통카드, 꽃, 지갑, 가방 등)
- 자리배열 : 반원형으로 둘러앉는다.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바닥에 앉도록 한다. 바닥에 앓기 어려운 참여자에게 훨체어, 의자를 제공한다.
- 1집단 적정인원 : 5명~10명

II. 진행과정

● 도입활동

- 선생님과 교육 참여자들 눈 마주치며 인사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각 센터의 화재 및 비상상황 대처 PPT 활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만나서 반가워요"

체험관 안전영상

- 스킨십 장면을 보며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인터넷 등에서 본 적은 있는지, 누구와 보는지, 기분은 어떤지 돌아가며 이야기 한다.
 - 스킨십 장면
 -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
 - 손가락 깍지 끼고 걷는 장면
 - 외진 곳에서 키스하는 장면 등
 - 내가 만일 데이트를 한다면?
 -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데이트 장면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가요?

데이트 욕구를 다양하게 물어보고 각자의 바람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전개활동

1. 두근두근 데이트! 상상해보세요.

1) 동료관계

- 나는 데이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주변 동료,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까요?
- 데이트를 원하지 않으면 동료관계에서 할 수 있는 친밀감 표현으로 교육연극을 진행한다.
- 출근하며 동료끼리 인사 장면, 점심을 먹는 장면, 함께 퇴근할 때 인사 장면, 일을 하다 몸을 부딪쳤을 때 사과하는 장면 등

2) 시작하는 연인관계

-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 볼까요?
- 어떤 장소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백을 할까요?
-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퇴근길에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사귀고 싶다고 고백하는 장면
(내 고백을 받아줬을 때 장면 또는 내 고백을 거절했을 때 장면)

3) 소중한 애인과 데이트 계획하기

- 애인과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으세요?
- 애인과 함께 가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 데이트를 제안하는 장면, 전화데이트 장면, 데이트 시 식사메뉴 제안하기 장면 등

◎ Tip 1 : 데이트 연습은 교육연극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다. 주강사와 교육생이 1:1로 상황을 연출하고 끝난 뒤에 잘 된 대화를 칭찬해주고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화내용인 경우는 강사가 적절한 대화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어 연습하도록 한다.

◎ Tip 2 : 언어표현, 이동 등이 어려우면 선생님의 말에 적절히 반응(고개 젓기, 손으로 OK 표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동료와 애인의 차이

동료와 애인의 차이를 물어보고 답변을 어려워하면 진행자가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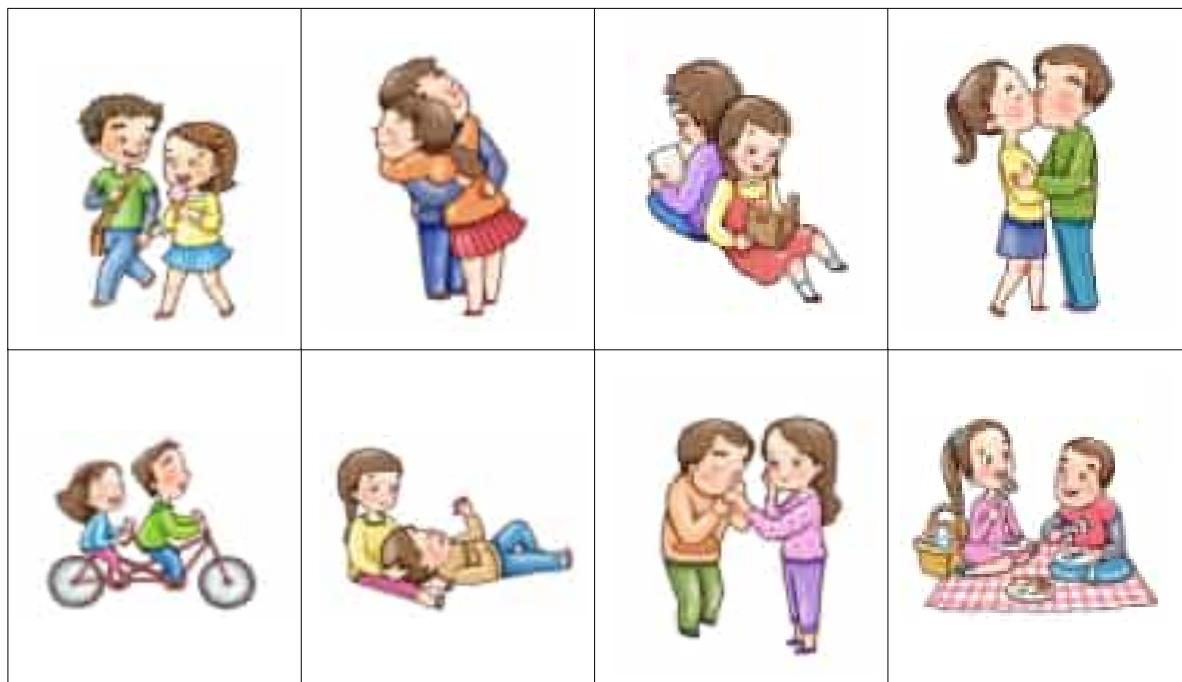
1) 동료에게 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보기

- 친밀감 표현하기(인사하기, 절친과 대화하기, 어깨동무, 친구와 놀러가기, 카페가기)
- 성적 표현은 NO! (성범죄가 될 수 있어요.)

2) 애인에게 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보기

애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 동료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림 자료에서 찾아 칠판에 붙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한다.

- 동료와 애인에게 모두 가능한 표현: 친밀감 표현하기(인사하기, 절친과 대화하기, 친구와 놀러가기)
- 애인 : 친밀감 표현 뿐 아니라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 Tip 1 : 같은 그림을 두 장씩 준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인, 동료에 동시에 붙이거나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데이트 준비하기

- 다양한 물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데이트에 필요한 물품을 각자 1~2개씩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는다. 왜 선택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 선택 이유를 답변하기 어렵거나 답변이 부적절한 경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물품 사진>



● 마무리 활동

1. ‘좋아요’ 게임

‘좋아요’ 게임: 모두가 동그랗게 모여 서서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표현한다.

-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인사만 한다.
-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 : 파이팅(손뼉 마주치기), 악수, 어깨동무, 가볍게 안아 주기 등



사랑 만들기

주제	친구와 애인 사이	시간	100분
목표	1. 애인과 데이트 시 대화법을 익힌다. 2. 스킨십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방식을 안다. 3. 안전한 피임방법을 안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 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입	1. 인사나누기 2. 안전교육 3. 성에 대한 느낌 나누기	PPT (스킨십장면)	교육장 (15분)
전개	1. 우리 연애할까? 1) 내게도 애인이 있어요! 2) 데이트 코스 정하기	스케치북, 사인펜, 색연필, 그림 자료	연애방 (25분)
	2. 나부터 사랑해요.		자궁방 (5분)
	휴식 (10분)		(10분)
마무리	3. 데이트 중 스킨십 - 다양한 스킨십.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 4. 성관계와 임신 - 성관계 전 생각할 것(준비할 것)	스킨십 판	사회방 (20분)
	5. 임신, 피임에 대한 선택과 책임		생명 탄생방 (15분)
마무리	1. '좋아요' 게임 -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친밀감 표현 하기		우주방 (10분)

사랑 만들기

I. 준비사항

- 준비물 :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PPT, ‘불’ 그림, 친밀감과 성적표현 그림 자료(2장씩), 데이트 물품(칫솔, 꽃, 돈, 침대, 콘돔 등)
- 자리배열 : 반원형으로 둘러앉는다.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바닥에 앉도록 한다. 바닥에 앉기 어려운 친구는 훨체어, 의자를 제공한다.
- 1집단 적정인원 : 5명~10명

II. 진행과정

도입활동

- 선생님과 교육 참여자들 눈 마주치며 인사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 각 센터의 화재 및 비상상황 대처 PPT 활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만나서 반가워요”

체험관 안전영상

- 스킨십 장면을 보며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인터넷 등에서 본 적은 있는지, 누구와 보는지, 기분은 어떤지 돌아가며 이야기 한다.
 - 스킨십 장면:
 -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
 - 손가락 깍지 끼고 걷는 장면
 - 외진 곳에서 키스하는 장면 등
- 만일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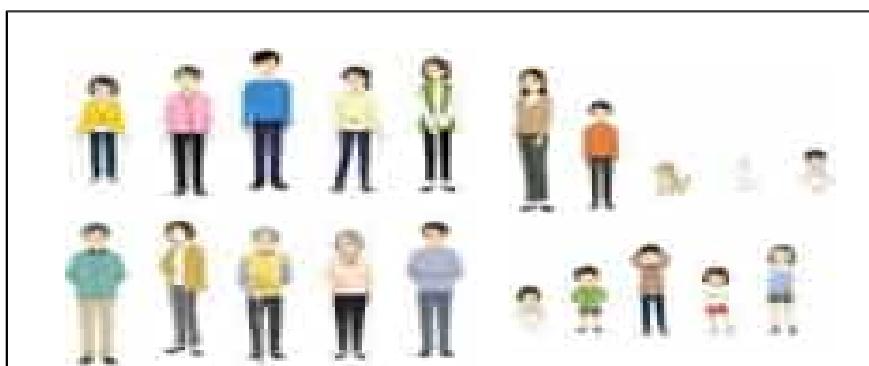
-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데이트 장면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 내가 데이트를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가요?
- 데이트 욕구를 다양하게 물어보고 각자의 바람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개활동

1. 우리 연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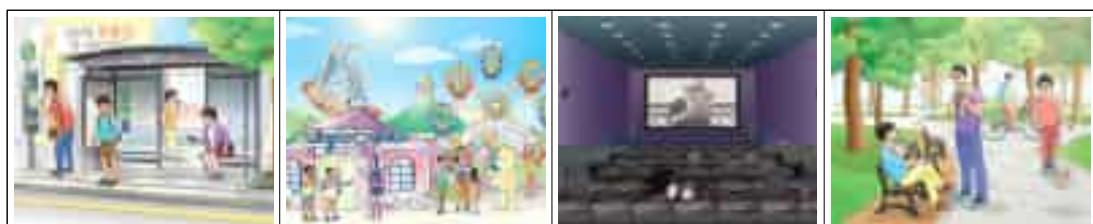
1) 내게도 애인이 있어요!

-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소개해 주실 분?
- 사랑하는 사람 소개하기
- 소개할 사람이 없거나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강사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 중에는 누가 있나요?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장애인 성인권 교육매뉴얼 - 경도장애를 중심으로 4회기: 가족 그림)을 보여주며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본다.



2) 데이트 코스 정하기

- 각자 스케치북에 데이트 코스를 그린다. 그리기 어려우면 스티커, 그림 등을 활용하여 5~7분의 시간을 주고 그린다.
 - 각자의 데이트 코스를 발표한다.
- * 그림자료(장애인 성인권 교육매뉴얼 - 경도장애를 중심으로 8회기: 6하원칙, 중복 장애를 중심으로. 6회기) : 교통수단, 데이트 장소(카페, 집, 바닷가, 공원, 극장 등))





2. 나부터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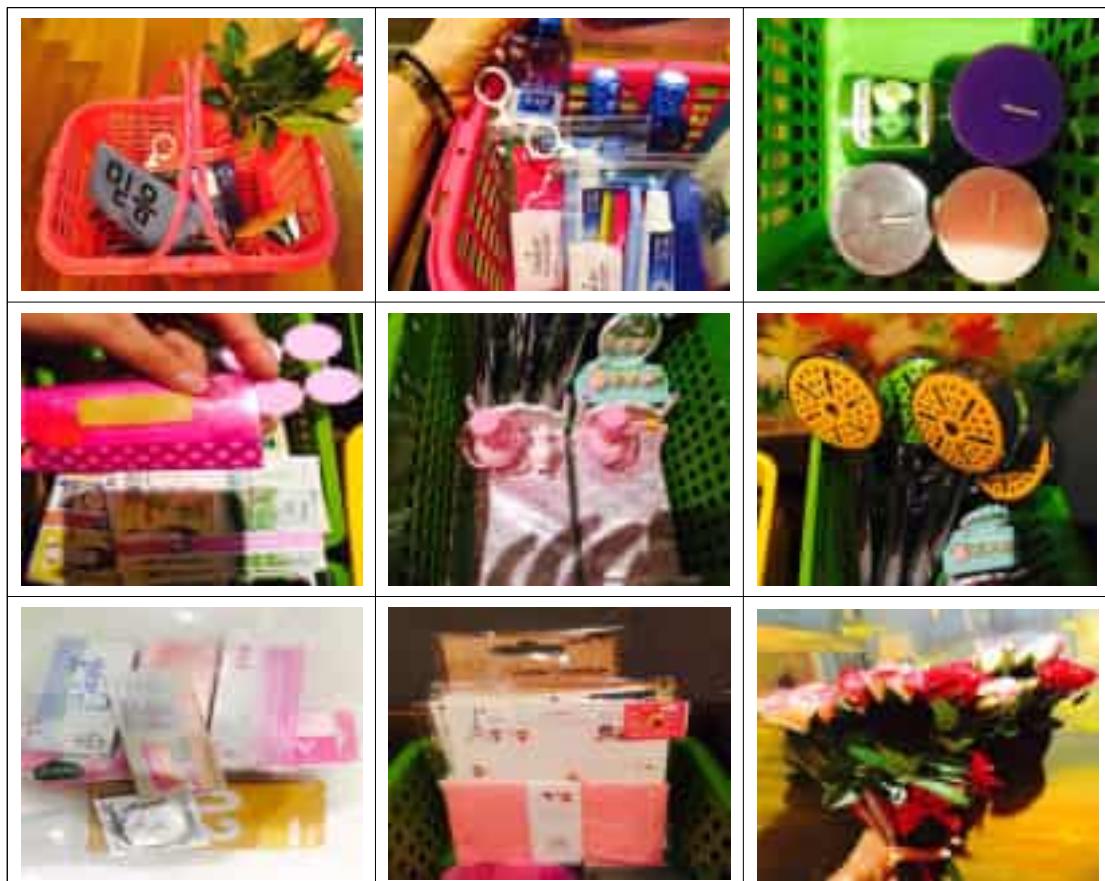
자궁방에서 태동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이완 시킨다.

3. 데이트 중 스킨십

스킨십 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킨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스킨십을 언제 누구와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눈다.

4. 성관계와 임신

성관계 전 생각할 것(준비할 것)에 대해 교육하는 교구(성관계 준비 피자판 등)를 활용하여 진행



< 성관계 전 준비할 것(사진: 서울시립중랑청소년문화센터) >
화장지, 음악, 향수 등 추가 가능

5. 임신, 피임에 대한 선택과 책임

1) 생명탄생방에서 아기 안아보기

아기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마디

2) 임신과 피임

- 임신과 피임에 대해 알려준다.
- 콘돔 사용법 지도
-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논의해서 성관계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 마무리 활동

1. ‘좋아요’ 게임

‘좋아요’ 게임: 모두가 동그랗게 모여 서서 다양한 인사 방법으로 자연스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표현한다.

-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인사만 한다.
-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스킨십 : 파이팅(손뼉 마주치기), 악수, 어깨동무, 가볍게 안아 주기 등

☞ 생각해보기(출처: 연합뉴스 2016.06.09.)

다운증후군 딸 둔 美여성이 낙태 권유한 의사에 쓴 '감동' 편지 "다음엔 꼭 완벽한 아이라고 말해주세요"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면 삶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던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제 아이와 같은 병을 지닌 아이를 보게 되면 꼭 엄마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아이는 완벽하다'고요."

다운증후군 딸을 둔 한 엄마가 임신 당시 낙태를 권했던 의사에게 쓴 공개편지가 미국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7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스탠퍼드에 사는 코트니 베이커는 딸 에머슨 페이스를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가 당신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낙태를 권유했고, 베이커가 이를 거부한 이후에도 임신 내내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고 그녀는 회고했다.

무사히 태어난 딸이 이제 15개월이 되자 베이커는 "다른 엄마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당시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를 페이스북에도 공개했다. 그는 다운증후군 아들을 둔 한 친구의 사례를 들며 편지를 시작했다.

베이커는 "친구를 진찰했던 의사는 임신 초음파를 보며 '당신의 아들은 완벽하다'고 했다고 한다."며 "친구가 아들을 낳고 의사를 찾아가니 그는 다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아들은 완벽하다고'라고 말했다."고 했다.

베이커는 자신은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졌다며 "당신은 지원과 격려 대신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했다. 미리 지은 아이의 이름까지 말했지만 당신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결정을 재고하라고 권유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베이커는 의사의 생각은 틀렸다며 "아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줬다. 아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했다.

베이커는 ABC뉴스에 "그 의사가 내 편지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신이 기적을 일으켜 그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6) 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가족

주제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기술 향상	시간	120분
목표	1.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을 알아본다. 2. 가족 관계에 따른 경계, 성적표현과 친밀감의 차이를 알고 서로 존중한다. 3.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 및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유대감을 높인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 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입	1. 강사 및 체험관 소개 2. 활동안내 및 마음열기 3. 안전교육 4. 섹슈얼리티 피자 만들기	- PPT(환경문구 및 안전 교육) - 섹슈얼리티 피자판(성나무)	교육장 (20분)
전개	1. 나는 사랑과 축복으로 태어난 존재 (자신과 만나기) 1) 태동 체험 2) 임신, 출산 시기에 있었던 일 엄마아빠에게 이야기 듣기 3) 신생아 안아보기 체험 4) 다양한 가족 알아보기	- 신생아모형 - 태동인형 - 활동지 - PPT(주거형태)	자궁방 외 기타장소 (25분)
	2. 봉어빵 놀이 1) 거울을 보며 부모자녀 닮은 꼴 3가지 찾기 2) 부모자녀 스트레칭		거울방 (10분)
	휴식 (10분)		(10분)
	3. 가정에서의 성행동 이렇게 지켜요 - 장소, 상황에 따라 그림 자료를 보며 역할극	- 다양한 장소	
	4. 부모와 함께 만드는 자녀의 주말 여가문화 1)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여가 계획세우기 2) 자녀의 주말데이트 계획을 부모님과 함께 세우기	- 스케치북 (가족 당 하나씩) - 사인펜 등 필기도구	사회 속의 성 (50분)
마무리	1. 가족사진 찍기 - 가족이 있어 행복해요.	- 핸드폰 사진 출력기 폴라로이드	우주방 (5분)

우리는 가족

I. 준비사항

- 준비물 : 음악(교육 전 사용), 체험관환경문구, 안전교육PPT, 피자교구 셋트, 성나무 교구, 가족활동지, 질문지, 장소 ppt, 다양한 가족, 장소그림카드
- 자리배열 : 가족끼리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II. 진행과정

도입활동 : 인사 및 친밀감 형성하기

1. 강사 및 성문화센터 소개

- 강사와 교육 참여자 간 눈 맞추며 인사하기
- 성문화센터 소개하기

2. 활동안내 및 마음열기

- 진행될 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소개
- 가족 소개 : 한 가족씩 일어나서 소개
- 나의 가족과 인사하기
(ex))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인사해본다.

3. 안전교육

- 비상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질문하기
- 비상상황 발생 시 다함께 해야 할 일 찾아보기
- 교육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알아보기
- 보호와 안전, 성폭력 예방의 최선은 긍정적으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원칙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만나서 반가워요"

체험관 안전영상

◎ Tip 1 : 교육 신청 시 교육 참여자의 이름을 미리 받아놓는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파악된 명단을 통해 이름표(목걸이, 이름 스티커, 출석부(포스트잇))를 만들어 놓는다.

- ☺ Tip 2 : 부모님과 했던 인사방법을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친구와 해보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면 관계에 따라 인사법이 달라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 Tip 3 : 청소년성문화센터소개, 활동안내, 안전교육은 PPT로 만들어 진행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섹슈얼리티 피자 만들기

- 피자판에 다양한 성 토팡 올려보고 선택한 이유, 느낌 발표하기
- 피자판은 '성의 나무'로 대체 가능
- ☺ Tip 1 : 토팡을 만들어 스스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자료 인용>

● 전개활동

1. 나는 사랑과 축복으로 태어난 존재 – 자신과 만나기

1) 태동 체험(활동지 활용)

내가 아기였을 때의 엄마와 아빠 이야기

2) 임신, 출산 시기에 있었던 일 엄마아빠에게 이야기 듣기

- 내가 아기였을 때 (부모는 자녀 출산할 때)
- 내가 태아였을 때를 상상해보기
- 내가 아플 때 누워있는 모습, 가장 편안한 자세 해보기
- 모든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있음을 설명

☺ Tip 1 : 성문화센터마다 공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궁방 체험은 선택적으로 한다.

3) 신생아 아기 안아보기 체험

- 너는 ___kg으로 태어났단다.
- 처음 만난 너를 본 느낌

4) 다양한 가족 알아보기

- 성인이 되면서 주거 형태에 따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관계도 달라져요.
- 다양한 가족 알아보기

- 구성원, 혈연, 그룹 홈, 시설 등 주거형태 따른 가족 등

☺ Tip 1 : 자녀가 성장하면서 원거리 학교 진학, 자녀독립, 부모사별 등으로 주거 공간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족형태도 변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2. 봉어빵 놀이

1) 거울을 보며 부모자녀 닮은 꼴 3가지 찾기

부모자녀가 함께 거울을 보며 닮은 곳 3곳을 찾아본다.

2) 부모자녀 스트레칭

마주 보고 웃어주기, 서로 어깨 안마하기, 서로 등 두드리기, 손 맞잡고 뒤로 젖히기, 마주보고 손뼉 치기 등

3. 가정에서의 성행동 이렇게 지켜요

1) 장소, 상황에 따라 그림 자료를 보며 역할극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 중복장애를 중심으로 교구활용: 화장실, 거실, 방 등)



2) 가정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행동에 대해 알아본다.

- 옷 갖춰 입기, 가족 간 친밀감 표현 방법, 목욕하기, 자위 등
- 잠을 자고 싶어요. 어디서 자야 할까요? (나, 부모님, 형제, 조부모님 등)
- 바지(치마)속에 손을 넣고 만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목욕을 했는데 갈아입을 옷을 안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에 친척(친구)이 놀러 왔어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 아빠가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 부모님이 제 방에 노크 없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에 뾰뽀하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 속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 생리를 해요. 생리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4. 부모와 함께 만드는 자녀의 주말 여가 문화

1)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하는 주말여가 계획세우기

가족끼리 모여 스케치북에 주말에 자녀가 하고 싶은 또는 해주고 싶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해 본다.

2) 자녀의 주말데이트 계획을 부모님과 함께 세우기

- 자녀의 데이트를 상상하면서, 데이트 계획을 세워본다.
- 자녀에게 누구와 데이트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매뉴를 선택할지?
- 데이트 비용은 얼마가 필요할지?
- 목적지 도착 후 어떻게 데이트를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다.

(ex) 친구 정수와 데이트하기로 결정

하고 싶은 것 : ○○영화관에서 오전 10시 조조로 '부산행' 보기 → 정수에게 데이트 신청은 어떻게 할지 결정 → 정수와 만나야 하는 약속장소와 시간 정하기 → 약속장소까지 이동 수단 결정하기 → 만난 후 인사는 어떻게? → 영화관으로 이동 → 티켓 비용은 어떻게? (내가 혹은 각자) → 티켓을 끊는 과정 → 극장 입장시간까지 대기시간에 해야 할 일(화장실, 팝콘사기 등) → 티켓에 있는 좌석번호 확인 → 자리 찾기 → 영화관람 → 팝콘과 콜라는 누가 들고 있을지? →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식사장소로 이동은 어떻게? → 식사 메뉴 선정은? → 식사 비용 지불은? → 헤어질 때 인사는? →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 총 필요한 데이트 비용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요청, 용돈사용 등)

3) 주말 가족여가 계획 또는 자녀데이트 계획 발표

☺ Tip 1 : 공공장소(버스나 지하철, 학교 화장실이나 복도, 쇼핑센터 등) 약속 및 행동을 설명 한다.



마무리 활동

가족끼리 사진 찍어주기

- 가족이 있어 행복해요.
- 편하게 원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도록 한다.

생각해보기

다음의 두 사례는 학교 회기별 교육에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만일 우리 체험관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1.

중등 교육 시 장애를 가진 남학생이 있었다. 장애학생은 수업에 집중을 잘 하였고 선생님의 동작이나 말 등을 따라하였다. 반 친구들은 ‘장애’라는 편견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행동을 의미 없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으로 취급했고 그 학생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례2.

초등학생 수업 때 도움반 친구들이 같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다른 아이들이 도움반 친구와 함께 앉는 것을 싫어하여 ‘야, 저리가’ 등의 말을 하며 톡톡 치고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동형 성교육프로그램은 대상을 초등학교 연령으로 한정하여 개발하였다. 버스라는 공간을 마을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내가 속한 마을의 공간구성과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마을 구성 원이 어떻게 안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고정형 성교육장과 달리 이동형 성교육장은 교육을 요청한 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라는 특성으로 아래 표와 같은 제약이 따른다.

주요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권의 전문교육장소에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의 읍·면 단위의 청소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 장거리 이동 가능- 대상, 목적, 시간에 맞추어 교육진행 가능- 학교 교실을 벗어나 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교구와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성교육 진행
이용자 준수사항	<p>▶ 교육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따름- 비장애인 25명 이내 / 장애청소년 15명 이내 <p>※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p> <p>▶ 교육 장소 및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길이 12m, 폭 2.5m 높이 3.5m)- 도로변이나 오르막/내리막 등의 경사진 곳과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교육진행 불가- 전기 연결이 가능한 곳(교육에 필요한 영상기자재 등을 사용)
주의사항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 자체를 두려워하는 장애청소년이 있을 시 대상 특성을 존중하여 참여하게 하지 않는다.
한계점	<p>▶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큰 활동은 제한 됨</p> <p>▶ 학교 교육 시 시간적 제약이 따름</p> <p>▶ 이동버스의 진입 및 장소에 대한 환경 마련</p> <p>▶ 전기연결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는 제약이 따름</p>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함께 해요

주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시간	40분
목표	1. 생명 탄생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2.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3.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한다.		
단계	세부내용	교육 기자재	교육장소 (소요시간)
도입	1. 인사 및 자기소개 2. 활동내용 안내 및 안전교육	명찰	버스 (10분)
전개	행복한 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마을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학교,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 - 다양한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 신호등 (위험한 상황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함께 이야기해요 2. 우리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산모와 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동 체험: 아기가 엄마에게 주는 신호 확인 - 출산산모: 아기와 엄마에게 출산 응원하기 - 아기 안아보기 체험: 인사나누기 3. 함께하는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보기 체험 : 나만의 멋진 별 찾아보고, 소원 빌기 	STORY마을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교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람) 태동인형 출산산모인형 신생아인형 우주속의 나(별) 잔잔한 음악	버스 (25분)
마무리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중한 나와 친구를 위해 서로 칭찬해 줘요 2.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족과 함께 얘기해요 	잔잔한 음악	버스 (5분)

행복한 마을 만들기

I. 준비사항

1. 준비물 :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교구(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람), 명찰
2. 교육대상 : 초등학생
3. 교육시간 : 40분(초등학교 수업기준 적용)

II. 진행과정

● 도입활동 : 인사 및 자기소개

1. 강사와 교육 참여자 간 눈 맞추며 인사하기

- 강사와 교육 참여자 간에 눈을 맞추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을 확인하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며 교육활동 전 마음열기를 한다.
(ex) 좋아하는 놀이나 음식 등 자신을 표현하여 마음열기

◎ Tip 1 : 버스 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강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활동내용 안내 및 안전교육

- 오늘의 활동안내
-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 안내
: 돌아다니지 않기 /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 버스 안에 있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 전개활동 : 행복한 마을 만들기

1.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마을 이야기

- 버스 내 STORY가 있는 마을 콘텐츠를 살펴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소개한다.
- 집, 학교, 놀이터 등 대상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소개하고, 평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고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들어준다.
- 마을 안 다양한 가족을 소개하고, 가족 및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한다.
- 신호등 스위치를 켜서 마을 안 위험한 상황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본다.

- 귀가하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매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Tip 1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에 대해 참여자들의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게 설명 한다.
(ex)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친구, 엄마친구, 이웃, 복지관 선생님 등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 학교나 복지관 담당선생님, 117경찰관들이 있어요.”
- ☺ Tip 2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아이들이 복잡하지 않게 “117” 한 가지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 Tip 3 : ‘STORY마을’ 콘텐츠는 「2010 아동·청소년 성보호프로그램 매뉴얼」 144p 자료18. 마을그림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버스 내 콘텐츠 ‘STORY 마을’ 활용> STORY 마을 전체 전경



STORY 마을 ‘다양한 가족’



STORY 마을 ‘위험 상황’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교구 활용>

- 2013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매뉴얼(경도장애) p.87 9회기 참고
 - : 교구12.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인물카드(경찰서, 성폭력상담소, 아동안전지킴이집, 집, 학교)
- 2012년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 학생용 지침서 ‘함께 어울리는 탁트인 세상’ 표지 그림(친구들)

2. 우리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와 신생아 아기를 소개한다.
- 산모 배를 만져보며 태동을 느껴보는 체험을 한다.(머리일까? 다리일까?)
- 출산산모인형을 통해 산모와 아기를 위한 응원을 한다!(힘내라! 화이팅!)
- 신생아인형을 직접 안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축하해! 반가워! 사랑해! 건강해!)
-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과 축복 속에 태어난 존재임을 함께 나누도록 한다.

◎ Tip 1 : 아기 안을 때는 미리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Tip 2 : 인형일지라도 산모와 아기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함께 하는 아름다움

- 우주 속의 나(별보기) 콘텐츠를 통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가족, 친구, 선생님 등)을 생각해 보며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할 때 즐겁고 힘이 되어줄을 확인한다.
- 소중한 우리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모두 눈을 감도록 지도한다. 이때 빛이 나는 모든 콘텐츠를 끄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주속의 나(별) 콘텐츠만 열어둔다.
- 눈을 뜨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도록 하고, 나만의 별을 찾아보고 나만의 소원이나 나를 위한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밤하늘의 별처럼 모두가 함께할 때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마무리 활동 :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약속

1. 소중한 나와 친구를 위해 서로 칭찬해 줘요.

- 오늘 활동에 대해 옆자리 친구와 칭찬을 주고받는다.

2.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족과 함께 얘기해요

- 귀가 후 가족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발표해 본다.
- 발표한 내용(친구칭찬, 가족과 대화)에 대해 매일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성교육 발자취 요약

- 1996년 국내 최초로 전문 성교육센터를 설립, 아·우·성(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운동
- 1999년 우리나라 최초 멀티미디어 성교육 체험관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현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 2002년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및 이동형성교육버스 운영
- 2007년 본 단체의 성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전국 약 16개 시도에 20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경기 안산지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전북 전주지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 2009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1년 경기 안산지부 공공부문 최초 이동형 버스 개소
맥(MAC)의 ‘비바글램 캠페인’ 기금지원 Yellow성교육버스 운영
- 2012년 맥(MAC)의 ‘비바글램 캠페인’ 기금지원 Yellow, Blue 성교육 버스 2대 운영
- 2014년 경기 수원지부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 2015년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보건센터 설립지원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 2016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탁틴내일 2016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장애·비장애 통합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집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총괄 추국화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장
참여 김희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경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진란영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정효진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

프로그램 감수

이선영 울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장보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미지 디자인

남일량 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자문위원

프로그램개발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장애·비장애통합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집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심으로

발행일 : 2016년 10월 28일

발행처 : (사)탁틴내일

전화 : 02-338-7480 F. 02-3141-9339

발행인 : 최영희

인쇄처 : 디자인내일

※ 사전 승인 없이 프로그램 내용 무단복제를 금함.